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에 대한  
다층모형분석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백예슬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에 대한  
다층모형분석

지도교수 이재림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백예슬

백예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형제자매 특성과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만혼 및 비혼에 따라 원가족과 동거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형제자매와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온정 및 갈등과 같은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형제자매가 1명 이상 있고 양친 부모가 모두 생존한 전국의 미혼 및 기혼 남녀였다. 형제자매 중 1명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모든 형제자매관계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남성 193명의 형제자매 305명에 대한 응답과 여성 203명의 형제자매 286명에 대한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형제자매 특성 및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개별 형제자매 관련 변수를 1수준으로 하고, 응답자 개인 및 부모 관련 변수를 2수준으로 하는 다층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로 형제자매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각기 측정하고 분석한 것도 본 연구의 특징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평균은 유사했으나 일부 특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 모두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제자매관계에서 부모의 편애를 인식하였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모의 편애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형제자매 특성(형제자매 수, 형제자매 순위 여부, 연령차이, 성별, 동거 여부, 본인 및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 중 남성의 경우 형제자매의 순위 여부,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가 온정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형제자매 수는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형제자매의

성별, 본인의 지원 빈도가 온정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형제자매 수와 형제자매 성별은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특정 형제자매가 본인보다 손아래일 경우, 특정 형제자매로부터 지원을 더 자주 받았을수록 온정 수준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자매와의 온정 수준이 남매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본인의 지원제공 빈도가 높을수록 온정 수준이 높았다. 청년 남녀 모두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았고, 여성은 성별이 같은 형제자매와 갈등 수준도 높았다. 즉, 오빠나 남동생에 비해 언니나 여동생과 온정과 갈등의 수준 모두 높은 특성이 있었다.

셋째, 부모자녀관계 특성(어머니·아버지와의 애정, 어머니·아버지의 편애인식) 중 남성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정은 온정과 갈등 모두와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편애인식은 낮은 수준의 온정과 관련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편애인식이 온정과 갈등 모두와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와의 애정은 온정과만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가 애정적일수록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간 갈등도 낮았다. 또한 남성은 어머니가 본인과 특정 형제자매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수록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낮았고, 여성은 아버지가 본인과 특정 형제자매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수록 온정 수준이 낮고 갈등 수준은 높았다. 즉, 본인과 성별이 다른 부모의 편애가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인 온정과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둘째,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같은 가족 내 다양한 특성을 규명하였다. 특히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간의 상호의존성을 밝혔다. 모든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형제자매관계 연구의 방법

론적인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의의도 있다.

주요어 : 청년, 형제자매 온정, 형제자매 갈등, 형제자매관계,  
세대관계, 부모의 편애, 다층모형

학 번 : 2021-24499

# 목 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6
제 1 절 청년시기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	6
1.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 .....	6
2.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	8
제 2 절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의 관련 요인 .....	11
1. 형제자매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	11
2.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	16
3.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	19
제 3 장 연구방법 .....	22
제 1 절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	22
제 2 절 측정도구 .....	26
1.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	26
2. 형제자매 특성 .....	27
3. 부모자녀관계 특성 .....	28
4. 통제변수 .....	29
제 3 절 분석방법 .....	30
제 4 장 연구결과 .....	36
제 1 절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의 전반적 경향 .....	36
제 2 절 형제자매 특성 및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과의 관련성 .....	38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43
참고문헌 .....	52
부록 .....	71
<부록 1> 질문지 .....	71
Abstract .....	84

## 표 목 차

<표 3-1> 연구참여자와 형제자매의 일반적 특성 .....	25
<표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남성 .....	31
<표 3-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여성 .....	32
<표 4-1>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 ..	38
<표 4-2> 온정 및 갈등의 기초모형 분석결과 .....	39
<표 4-3>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에 관한 다층 회귀분석 결과 .....	42

## 수 식 목 차

<수식 3-1> 형제자매 온정 기초모형 .....	33
<수식 3-2> 형제자매 갈등 기초모형 .....	34
<수식 3-3> 집단 내 상관계수 .....	34
<수식 3-4> 연구모형 .....	35

##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결혼 연령이 점차 상승하고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청년이 증가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시기에도 형제자매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형제자매가 각자 생애과업을 수행하면서 청년시기에는 비교적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청년들은 형제자매와 유대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Hamwey et al., 2019).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청년시기까지 장기화되면서(Nelson et al., 2011) 부모가 교육비, 생활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나 애정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녀 간 불균형으로 형제자매 간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형제자매관계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Gilligan et al., 2020). 청소년기의 위계적인 형제자매관계에 비해 청년시기에는 비교적 수평적인 형제자매관계가 형성된다(Tanskanen & Rotkirch, 2019). 청소년기와 비교해 청년시기에는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인식하며, 갈등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Lindell et al., 2014). 청년시기에는 부모와의 관계 이외에도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진다(Jensen et al., 2018). 그러나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cHale et al., 2012). 성인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중·노년기(Stocker et al., 2020)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연구(Hamwey et al., 2019; Jensen et al., 2018; Milevsky & Heerwagen, 2013)가 증가하였으나, 그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년은 대학생 이외에도 다양한 삶의 맥락에 있으며, 연령 범위도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 포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청년시기에 초점을 맞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장휘숙(2009)의 연구가 유일하지만, 최근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시기가 연장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만 19세에서 34세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만 19-34세를 청년으로 보고 경제활동, 결혼지위, 지역 측면에서 다양한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의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할 때 정서적 측면인 온정과 갈등은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은 한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지각, 태도,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휘숙, 2009). 선행연구에서는 형제자매 간 온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관계적 지지망(Conger et al., 2020; Hughes et al., 2018; Perricone et al., 2014)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Gungordu & Hernandez-Reif, 2022). 하지만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측면은 온정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양가적인 특성이 있다(Cicirelli, 1991; Stocker et al., 1997). 따라서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 온정과 부정적 인식인 갈등을 모두 포괄하여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은 다양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주로 형제자매와의 연령차이, 성별구성, 순위-손아래, 형제자매의 수와 같은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Campione-Barr & Smetana, 2010; McHale et al., 2012; Riggio, 2006; Stewart et al., 2001). 이러한 형제자매 특성은 형제자매관계 내에서 본인과 형제자매의 순위 및 지위에 대한 것으로, 다른 역할과 기대를 부여받고, 상대적인 권력 및 능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특성이다(Bowerman & Dobash, 1974). 특히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에서 다른 역할과 기대를 부여하는 한국의 유교적 가족문화 맥락(Sung & Lee, 2013)을 고려했을 때, 연령차이, 성별구성, 순위-손아래와 같은 형제자매 특성은 한국 청년의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형제자매로부터 도구적·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형제자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 내 하위체계는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가족체계적 관점(Cox & Paley, 1997)에서 보았을 때, 부모와의 애정이나 편애와 같은 세대관계 특성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형제자매와 더 온정적이고 덜 갈등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으며(Ruff et al., 2018; Zemp et al., 2021), 부모가 자녀들과 차별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Zhao et al., 2021). 특히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조합에 따라 상이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Gilligan et al., 2013; Sutor et al., 2013), 부모자녀관계 특성은 부모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부모자녀관계 특성으로는 어머니·아버지와 애정, 어머니·아버지의 편애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예측요인은 청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은 주로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Milevsky et al., 2005; Ponti & Smorti, 2019). 그러나 청년의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와 맺는 관계의 양상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특성은 성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특성을 탐색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선행연구는 형제자매관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참여적이고 관계지향적으로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Weigel & Weigel, 2015). 따라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계형성 능력뿐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나 상호작용 동기는 형제자매관계의 더 많은 상호작용과 강한 친밀감을 초래할 수 있다(Aldrich et al., 2022). 반면, 남성은 형제자매 간 상대적인 위계에 기반해 형제자매와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Spitze & Trent, 2006). 따라서 출생순위와 같이 형제자매와 본인의 순위 및 지위와 같은 특성이 남성의 형제자매관계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청년의 성별에 따라서 형제자매관계

의 성격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별을 구분하여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제자매관계는 두 명 이상의 형제, 자매, 남매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복잡하다. 기존의 연구는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거나 연령이 가장 비슷한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을 살펴본 경향이 있다(Cicirelli, 1995; Knipscheer & Tilburg, 2013; Spitze & Trent, 2018; Voorpostel et al., 2012). 이러한 방식은 응답자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를 자의적으로 선택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며(장휘숙, 2009), 다른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형제자매에 대한 응답을 활용해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명의 응답자가 복수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개체 간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어(강상진, 2016) 다층모형과 같은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시기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성별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때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형제자매 특성(형제자매 수, 형제자매 순위 여부, 연령차이, 성별, 동거 여부, 본인 및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 부모자녀관계 특성(어머니·아버지와 애정, 어머니·아버지의 편애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초동적인 성격의 연구이다.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 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며, 부모자녀관계와 상호연관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족관계 차원에서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형제자매 특성(형제자매 수, 형제자매 순위 여부, 연령차이, 성별, 동거 여부, 본인 및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은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수준과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자녀관계 특성(어머니·아버지와의 애정, 어머니·아버지의 편애인식)은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가?

## 제 2장 선행연구 고찰

### 제 1 절 청년시기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 1.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

형제자매관계는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가족 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Eriksen & Gestel, 2000; Stocker et al., 1997; White, 2001). 특히 다른 사회적 관계와는 다르게 형제자매는 가족 환경을 공유하고 공통된 유전적 특성을 갖는다. 형제자매관계는 초기 발달단계에서 처음으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 지지관계인 동시에 자극대상 및 역할모델 역할을 한다. 이에 형제자매관계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 중요한 가족관계 중 하나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Buist et al., 2013). 중·노년기에는 돌봄의 이슈나 주요 사회관계망의 맥락에서 형제자매관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Ge & Jiang, 2021; Gilligan et al., 2020; Kalmijn & Leopold, 2019; Stocker et al., 2020).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의 중요성은 각자의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해 서로 소원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있다(Barberis et al., 2022). 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인식, 태도, 경계 또한 재조정(recentering)될 수 있다는 점에서(Jensen et al., 2018), 형제자매관계 내에서 청년시기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amwey et al., 2019).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는 다른 발달단계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관계는 ‘자발적인’ 특성을 가진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성인기 이전에 부과되던 가족관계의 종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Cicirelli, 1995). 둘째, 성인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형제자매관계는 권력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청소년기의 위계적인 형제자매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된다(Tanskanen & Rotkirch, 2019). 셋째,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는다(Winkeler et al., 2000).

이상과 같은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에 주목하여 청년의 형제자매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국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국가에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Gungordu & Hernandez-Reif, 2022; Hamwey et al., 2019; Stocker et al., 2020), 아시아권인 중국(Chen & Tan, 2021; Ge & Jiang, 2021; Yin et al., 2019), 타이완(Hong et al., 2019)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맥락에서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오늘날의 한국 청년들은 형제자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와 주거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도구적 지원과 같은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다(Andersson, 2020). 또한 대학입학, 취업과 같은 생애사건으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가 발생하더라도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가까운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Wilkins-Clark et al., 2022). 형제자매의 수가 과거에 비해 적은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만 19-34세의 연령대별 출생 당시의 평균 출생아 수는 만 19-24세가 1.2-1.4명, 만 25-29세가 1.4-1.6명, 만 30-34세가 1.5명이었다(통계청, 2023). 즉, 현재 한국 청년은 외동을 제외하면 한 명의 형제자매와 성장한 경우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형제자매가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원을 받는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청년시기에도 부모의 애정과 자원으로부터 형제자매와 경쟁하며 갈등도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 즉, 청년 시기의 형제자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최현주, 2021), 일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설경옥, 김유나, 2018; 윤정민 외, 2019).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2009)의 연구와, 20-60세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대에 따른 형제자매 간 온정과 갈등 수준을 비교한 임미혜와 지연경(2016)의 연구에서 청년시기를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형제자매관계는 청년의 다양한 삶의 맥락과 맞물려 있을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Hollifield & Conger, 2015), 청년들의 형제자매관계 양상이 어떠한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모든 형제자매가 아닌, 특정 형제자매의 정보, 관계만을 측정했다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즉, 둘 이상의 형제자매를 가진 경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연령이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와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연구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장휘숙, 2009). 최근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측정 방식이 다양한 형제자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족 안에 내재된(nested) 모든 형제자매의 응답을 활용한 연구(Ge & Jiang, 2021; Tanskanen & Danielsbacka, 2017; Tanskanen, & Rotkirch, 2019)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는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모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각각 측정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모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각각 측정하고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측정하게 되면 한 명의 응답자에게 있어 개인 및 부모 특성은 한 가지이지만, 형제자매관계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별로 응답이 다른 다층자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자료는 기존 회귀분석에서 가정하고 있는 개체 간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게 되어 다층모형을 활용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강상진, 2016).

## 2.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형제자매관계의 이해와 탐색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어떤 측면을 살펴볼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인 온정과 부정적인 인식인 갈등은 청년 개인의 내외적인 발달과 청년의 사회적인 생활과 관계에까지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적 측면이다.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측면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주로 형제자매관계의 친밀한 모습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Ponappa et al., 2017; Sherman et al., 2006; Tucker et al., 2013).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지지와 유대와 같은 온정적인 관계가 청년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Gungordu & Hernandez-Reif, 2022; Hollifield & Conger, 2015). 그러나, 형제자매관계는 온정과 갈등이 공존하는 양가적인 특성이 있다(Cicirelli, 1995). 선행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인 갈등이나 긴장은 이성과의 관계 유지(Doughty et al., 2015),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며(Bellin & Rice, 2009), 낮은 자존감, 우울 증상과도 관련이 있었다(Buist et al., 2013; Shanahan et al., 2008). 따라서 형제자매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인 온정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인 갈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가족 내 다양한 특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미흡했다.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와 관련이 있는 특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변량은 형제자매 성별구성, 연령차이와 같은 특성에 의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지만(장휘숙, 2009; Scharf, 2005), 청년시기에는 다양한 특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Tanskanen & Rotkirch, 2019). 따라서 형제자매관계는 형제자매의 특성, 부모와의 관계적인 측면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형제자매 온정 및 갈

등과 관련 있는 형제자매 특성과 부모자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서구와는 달리 국내의 맥락에서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관련 요인을 살펴본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대학생의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본 장휘숙(2009)의 연구와 연령대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특성을 탐색한 임미혜와 지연경(2016)의 연구 정도가 있다. 서구에서 밝혀진 형제자매관계와 관련 있는 요인들이 한국의 맥락에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한국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와 관련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의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남성과 여성은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Antonucci,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사적인 수준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훨씬 능숙한 것으로 나타났다(Bedford, 1989). 이에 여성은 형제자매관계 내에서 사회정서적 역할을 수행하고(Suitor et al., 2011), 남성에 비해 형제자매와 연락 및 지원교환을 더 자주 주고받았다(Antonucci, 2001; White, 2001). 따라서 집안일 등 신체적으로 형제자매를 돕거나 경제적으로 형제자매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지원행동은 여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Conger & Little, 2010). 반면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형제자매와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부터 형성된 상대적인 권력과 위계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었다(Spitze & Trent, 2006). 따라서 순위 여부, 연령 차이와 같이 형제자매 간 상대적인 권력 및 역할 차이와 관련 있는 특성은 남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여성과 남성이 형제자매와 맺는 관계양상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는 특성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의 성별을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의 예측요인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 2 절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의 관련 요인

### 1. 형제자매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형제자매 특성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다(Campione-Barr & Smetana, 2010; McHale et al., 2012; Riggio, 2006; Wong et al., 2010). 형제자매 특성으로는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의 순위 여부, 연령차이, 형제자매의 성별, 동거 여부, 본인 및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가 있다.

형제자매 특성 중 형제자매의 순위 여부, 연령차이, 형제자매의 성별과 같은 특성은 개인과 형제자매 사이에서 순위 및 지위를 결정하며, 다른 역할과 기대를 부여받고, 상대적인 권력 및 능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특성이다(Bowerman & Dobash, 1974). 이러한 특성은 유교적 가족관계 규범이 강한 한국의 맥락에서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는 특성일 수 있다. 또 형제자매와의 동거는 형제자매 간 유대행동과도 관련 있는 특성으로 연구되어 왔다(Jensen et al.,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은 형제자매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Riggio, 2006). 먼저, 형제자매의 수는 형제자매 간 온정과 갈등과 관련 있는 중요한 형제자매 특성으로 연구되어 왔다(Michalski & Euler, 2008; Pollet & Hoben, 2011; Riggio, 2006; Steinbach & Hank, 2018; Stewart et al., 2001; Van Volkom et al., 2011; Van Volkom & Beaudoin, 2017). 고갈이론 관점에서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분배받는 부모의 자원과 애정이 적게 되고 이는 형제자매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Goodwin & Roscoe, 1990; Wu et al., 2018). 반면에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서로 챙기거나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온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Bat-Chava & Martin, 2002). 따라서 형제자매 수는 형제자매 간의 인식과도 관련 있는 특성일 수 있다.

형제자매 수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복잡적

인 양상을 보인다.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한 연구결과(Milevsky et al., 2005)가 있는 반면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형제자매에 대한 친밀성을 보고한 연구결과(Lawson & Brossart, 2004; Riggio, 2006)도 있다. 오늘날의 청년시기는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형제자매 수는 자원배분의 문제와 연결된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공동체주의, 협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가족문화로 인해(Hill 2000; Taylor et al. 2004),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서로 협동하고, 나누며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맥락에서 형제자매가 수가 많을수록 온정 수준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형제자매 수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형제자매가 손위인지, 손아래인지 여부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도 관련이 있는 특성일 수 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유교적 가족주의에 따라 손아래 형제자매가 손위 형제자매의 권위와 권력을 우대, 존중하도록 성장해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Sung & Lee, 2013), 한국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는 특성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형제자매 간 지위를 결정짓는 특성으로 주로 본인의 출생순위를 살펴보고 있다(Pollet & Nettle, 2007). 하지만 출생순위는 본인의 순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형제자매 순위 여부는 본인과 비교한 형제자매의 상대적인 출생순위로(Stocker et al., 1997) 형제자매관계 내 본인, 형제자매 모두의 상대적인 지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순위보다 더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순위 여부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제자매의 순위 여부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일부 응답자의 순위 여부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손위 형제자매가 손아래 형제자매에 대해 낮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하며(Bleske-Rechek & Kelley, 2014), 손아래 형제자매에 대한 정서적 가까움과 친밀감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Healey & Ellis, 2007). 이와는 반대로 손위 형제자매가 형제자매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손아래 형제자매가 형제자매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연구결과(Bat-Chava & Martin, 2002)가 있다. 이상의 순위 여부에 대한 혼재된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형제자매 순위 여부가 현재의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형제자매의 성별과 본인의 성별의 조합은 형제자매관계의 인식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다. 성별구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과 갈등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국가별, 문화별로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먼저 미국, 유럽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청년시기, 중·노년기 모두 형제자매와 본인이 모두 여성인 자매구성이 형제자매관계를 가장 온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매구성, 형제구성 순이었다(Barroso, 2011; Jensen et al., 2018; Van Volkom et al., 2011; Weaver et al., 2003; Whiteman et al., 2011). 반면, 청소년기 및 청년시기에 자매관계는 형제 및 남매구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한 연구결과(Doron & Sharabi-Nov, 2016; Lindell et al., 2014)도 있다. 청소년기 양가적인 자매관계가 성인 초기까지 이전되고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Campione-Barr & Killoren, 2019). 한편, 노년기 형제관계가 다른 성별구성에 비해 더 자주 왕래하며 친밀한 관계를 보고한 중국 연구(Ge & Jiang, 2021)도 있다.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구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장휘숙(2009)의 연구에서는 동성 형제자매구성은 이성 형제자매구성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을 보고하였으나 갈등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양상을 살펴본 임미혜와 지연경(2016)의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와 성인초기 자매가 중·노년기 자매보다 갈등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성별구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된 서구에 비해 한국 청년의 성별구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청년의 성별구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형제자매와의 연령차이는 형제자매관계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연

구되어 왔다. 연령차이는 발달단계별로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중·노년기에는 형제자매와 연령의 큰 이질성은 형제자매와 다른 발달단계에서 다른 유형의 자원을 교환할 기회로 이어져 온정 수준과 관련 있을 수 있지만(Van Volkom, 2006), 성인초기에 형제자매와 연령차이가 크게 날 경우 온정성이 감소할 수 있다(Pollet, 2007). 반면, 연령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며 관심사를 공유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Lindell et al., 2014). 이와 반대로 학업 성취,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형제자매와 성취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기제로 작동하여(Conger & Little, 2010; Jensen et al., 2013; Shanahan et al., 2008), 낮은 수준의 온정과 높은 수준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해보면, 청년시기의 형제자매 간 연령차이는 청년과 형제자매 간의 생활영역, 관심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Pollet, 2007).

연령차이와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종단연구를 통해 25-30세 사이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Jensen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와 연령차이가 3세 미만으로 유사한 경우 1차년도와 비교해 2차년도(평균 만 30세)에 측정된 갈등의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ilevsky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와의 연령차이가 2세 이하로 유사한 경우 더 높은 갈등 수준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혼재된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맥락에서 형제자매와의 연령차이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는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 지원교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형제자매 특성으로 다루어졌다. 형제자매와 동거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와 동거할 때 온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Jensen et al., 2018)가 있는 반면,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높은 수

준의 갈등을 보고한 연구결과(Salmon & Hehman, 2021)도 있다. 또,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온정과 낮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한 연구결과(Hamwey et al., 2019; Lindell et al., 2014; Whiteman et al., 2011)도 존재한다. 종합하면, 형제자매와의 동거는 형제자매관계의 활발한 역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다.

교육을 마친 후 취업, 결혼을 해야 주거 독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었다(이병희 외, 2010). 이에 분가시기가 지연되면서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청년의 수가 적지 않다(Oliveira et al., 2020).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도 청년시기 형제자매와의 동거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서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동거 여부와 형제자매의 유대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으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것이 규범적인 시기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청년시기에 적용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Bascoe et al., 2012; Tillman, 2008). 따라서 청년의 형제자매 동거 여부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형제자매의 지원을 받거나 형제자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로를 돕는다는 것에서 기인되는 뿌듯함(Branje et al., 2004)과 동시에 형제자매 간 온정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맥락에서(이여봉, 김현주, 2014), 형제자매 간 지원은 형제자매관계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교환 측면은 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연구되고 있으며(김은정, 2015; Fingerman et al., 2009), 형제자매 간 지원과 형제자매의 온정 및 갈등과 관련된 논의는 부족하다.

중·노년기 형제자매 간 지원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특정 지원유형(물질적·도구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Voorpostel & Blieszner, 2008; Voorpostel & Van Der Lippe, 2007).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것과 같은 교환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형제자매 간 지원을 특정 지원유형에 초점을 두기보다 경제적, 도구적 영역을 포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제자매 간 지원은 본인이 제공하는 지원과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본인이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일방향적인 지원만을 측정(Guan & Fuligni, 2016; Weaver et al., 2003)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는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Milevsky, 2019), 청년시기 부모자녀관계와 비교해 대칭적으로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 지원을 본인의 지원 빈도,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이 형제자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역량감과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감과 관련이 있었다(Hollifield & Conger, 2015). 이와 반대로 잦은 지원은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Eriksen & Gerstel, 2002), 본인의 지원 빈도는 낮은 수준의 온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원은 고마움과 동시에 의존,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Stocker et al., 2020), 낮은 온정 수준 및 높은 갈등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의 순위 여부, 연령차이, 형제자매의 성별, 동거 여부, 본인 및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를 형제자매 특성으로 구분하고 청년 남녀의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부모와의 관계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다양한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하나의 체계이다(Cox & Paley, 1997).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하위체계와 형제자매 하위체계는 부부 하위체계와 함께 핵심적인 하위체계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역동이 형제자매 간의 역동에 영향을 미친다(de Bel et al., 2019). 예를 들어 청년 자녀와 부모가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긍정적 상호작용 패턴이 청년이 형제자매와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Derkman et

al., 2011; Voorpostel & Blieszner 2008). 반대로 부모가 특정 자녀를 선호하거나 더 지지하는 등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면, 형제자매관계 인식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Stocker et al., 2020). 부모의 편애로 인해 형제자매 간에 경쟁심리나 질투, 반목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Fosco & Grych, 2010; Zhao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로 긍정적 측면인 부모와의 애정, 부정적 측면인 부모의 편애인식과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정이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침을 지적해 왔다. 18-42세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 간 친밀함, 갈등, 지원 빈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Hank and Steinbach(2018)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 및 아버지와 응답자 간의 정서적 가까움과 친밀감은 높은 수준의 형제자매와의 정서적 가까움과 친밀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 및 아버지와 응답자 간 잦은 갈등 빈도는 형제자매 간 높은 수준의 갈등과도 관련 있었다(Kalmijn & van Duijn, 2019; Yu & Gamble, 2008). 이와는 반대로,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의 연관성을 탐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난,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식할수록 형제자매 간 친밀감을 보고한 연구결과(Feinberg et al., 2003)도 있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는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 간의 관련성은 아동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양상이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성인기에는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Derkman et al., 2011).

부모의 애정과 자원에 대한 형제자매 간의 경쟁과 갈구는 청년시기에도 지속된다(Gilligan et al., 2013). 경쟁 수준과 그 강도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비해 감소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시기에도 부모의 편애를 유의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igan et al., 2013; Jensen et al., 2013). 따라서 부모의 편애인식은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편애는 특정 자녀를 다른 자녀에 비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다른 형제자매와는 비교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Gilbert & Gerlsma, 1999; Sutor et al., 2006). 부모의 편애인식과 형제자매관계의 관계를 탐색한 초기 연구는 주로 사회적 비교이론에 근거하여(Festinger, 1954; Suls & Wheeler, 2000), 상대적으로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할 때 형제자매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Rauer & Volling, 2007).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편애가 선호되는 자녀와 선호되지 않는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Boll et al., 2003). 선호의 방향성에 앞서 편애의 존재 자체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Boll et al., 2003; Kowal & Kramer, 1997).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이득을 얻는 쪽이나 손해를 보는 쪽 모두 형제자매관계 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Kowal et al., 2006; Peng et al., 2018; Tamrouti-Makkink et al.,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편애지각과 형제자매관계 인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Kowal et al., 2006; McHale et al., 2000)에 따르면, 부모의 대우를 공정하게 인식할수록 형제자매관계를 더 온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편애는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한국의 맥락에서도 형제자매 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둘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 때 낮은 수준의 온정과 높은 수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 내 차별의 존재 유무가 형제자매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유된 가족환경으로써, 형제자매관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에 따라(Kowal et al., 2006), 형평성 이론에 근거한 편애인식과 한국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의 관계를 탐색할 때는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인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관계를 형성하며(문수경, 2005; 이선희 외, 2008), 부모와 자녀의 성 조합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성의 부모-자

녀 성별 조합이 이성의 부모-자녀 성별 조합에 비해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rtogg & Szydlik, 2016; Raley & Bianchi, 2006). 따라서 어머니-딸 사이의 친밀감은 여성의 형제자매관계에, 아버지-아들 사이의 친밀감은 아들의 형제자매관계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동성 부모의 편애인식 또한 동성 자녀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며 더 자주 정서적 교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문수경, 2005), 어머니와의 애정 및 어머니의 편애인식은 성별에 관계 없이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더 투자하고, 아버지는 딸에게 정서적으로 더 투자한다고 한다(Raley & Bianchi, 2006; Salmon, 2003). 따라서 남성 형제자매관계에는 어머니와의 애정 및 어머니의 공정한 대우가, 여성 형제자매관계에는 아버지와 애정 및 아버지의 공정한 대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년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편애지각은 형제자매 간의 긴장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여성인 자신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 때, 형제자매 간의 긴장수준이 높았다(Gilligan et al., 201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여 어머니 및 아버지와 애정 및 편애인식과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형제자매, 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먼저 본인과 형제자매의 연령은 선행연구에서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대체로 청년, 중·노년기 형제자매관계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온정수준이 높고, 갈등 수준이 낮았다(Riggio, 2006).

둘째, 본인과 형제자매의 교육수준은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는 요인일 수 있다(Steinbach & Hank, 2018). 선행연구는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와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였다(Van Volkom et al., 2011). 형제자매의 교육수준과 형제자매 간 친밀감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일부 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높은 교육수준은 형제자매 간의 정서적 가까움, 친밀감과 관련이 있었다(Hank & Steinbach, 2018). 반대로 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Jensen et al., 2018)도 있다.

셋째, 본인과 형제자매의 경제활동 여부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을 수 있다(Aldrich, 2019). 경제활동은 형제자매와 주거분리 및 경제적 자립과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성인기 이행 지표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회적인 역할과 요구로 인해 형제자매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여 형제자매 간의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와 청년 본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온정 수준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갈등 수준은 낮았다(Jensen et al., 2018).

넷째, 본인과 형제자매의 결혼지위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와 가족이 생활세계의 중심이 되어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이 감소할 수 있다(Conger & Little, 2010). 그러나 본인과 형제자매의 결혼지위에 따른 온정 및 갈등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본인은 기혼이고, 형제자매는 미혼일 경우 갈등 수준이 더 높았다(Aldrich, 2019; Jensen et al., 2021). 이와는 반대로 본인과 형제자매의 결혼지위는 온정 및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Jensen et al., 2018)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동거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한 경우 형제자매를 더 온정적으로 인식한 반면(Whiteman et al., 2011),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갈등 수준이 높았다(Salmon & Hehman, 2021).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의 사회문

화적 맥락에서는 서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형제자매가 1명 이상 있으며 만 19-34세인 청년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이 때 형제자매는 부모가 둘 다 같은 형제자매, 부모가 한 명만 같은 형제자매, 입양 등으로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였다. 청년의 연령범위를 만 19-34세로 규정한 것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다. 표집은 성별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1:1로, 연령대를 만 19-24세, 25-29세, 30-34세를 1:1:1 비율로 할당하였다. 결혼여부는 형제자매관계에서 차별적인 경험이므로, 변수화하기 위해 응답자 선정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는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응답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었으며, 모든 문항에 응답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결측값이 없었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2022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청년 총 450명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형제자매에 대한 문항은 모든 형제자매에 대한 응답을 각각 수집하였다.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부모 두 명 모두 생존한 총 396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남성 응답자는 193명으로 형제자매 305명에 대해 응답하였고, 여성 응답자는 203명으로 형제자매 286명에 대한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자료의 수집 과정은 연구자의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과 이들의 형제자매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범위는 남녀 모두 만 20-34세였으며 남성은 평균 27.65세( $SD = 4.32$ ), 여성은 평균 27.61세( $SD = 4.14$ )였다. 주관적 계층인식(응답범위: 1-10)의 남성 평균은 4.80점( $SD = 1.53$ ),

여성은 평균 4.74점( $SD = 1.40$ )으로 남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본인의 사회계층을 지각하였다. 교육년수의 경우 남성은 평균 14.74년( $SD = 1.74$ ), 여성은 평균 15.07년( $SD = 1.58$ )이었다. 연령과 주관적 계층인식, 교육년수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남성은 142명(76.60%), 여성은 149명(73.40%)으로 대부분이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남성의 경우 평균 3.17점( $SD = 1.58$ )으로 200~299만원 급간 사이, 여성은 평균 2.65점( $SD = 1.32$ )으로 100~199만원 급간 사이에 해당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았다( $t = 3.14$ ,  $p < .01$ ). 응답자 중 기혼자는 남성 25명(13.00%), 여성 22명(10.80%)으로 대부분이 미혼이었다.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16명(8.30%), 여성은 15명(7.40%)으로 대부분이 자녀가 없었다. 결혼 지위와 자녀 유무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출생순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녀 모두 첫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둘째, 셋째, 넷째 순이었다( $\chi^2 = 9.77$ ,  $p < .05$ ).

다음으로 응답자가 보고한 형제자매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 연령은 남성 응답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만 9세부터 48세까지 분포했으며 평균은 27.30세( $SD = 6.45$ )였다. 여성 응답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은 만 11세부터 44세까지 분포해 있었으며, 평균은 26.57세( $SD = 5.83$ )였다. 주관적 계층인식(응답범위: 1-10)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형제자매는 평균은 5.14점( $SD = 1.66$ ), 여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평균은 4.93점( $SD = 1.53$ )이었다. 대부분 중앙값인 5점 전후였다. 교육년수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형제자매는 평균 13.98년( $SD = 2.49$ ), 여성 응답자의 형제자매는 평균 13.86년( $SD = 2.46$ )이었다. 형제자매의 연령, 주관적 계층, 교육년수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형제자매 성별은, 형제자매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남성 응답자는 157명(51.50%), 여성 응답자는 143명(50.00%)으로 여성 형제자매가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남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141명(46.20%), 여성 응답자의 형제

자매 155명(54.20%)으로 절반 정도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응답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지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중 기혼은 56명(18.40%), 여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중 기혼은 36명(12.60%)으로 남녀 모두 미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X^2 = 3.74, p < .05$ ). 자녀유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중 51명(16.70%), 여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중 30명(10.50%)만이 자녀가 있었다. 남녀 모두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X^2 = 4.85, p < .05$ ).

형제자매와 동거 여부는 남성의 경우 해당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가 148명(48.50%), 여성의 경우 126명(44.10%)으로 남녀 모두 해당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형제자매와 거주 근접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 = 12.10, p < .01$ ). 남성은 해당 형제자매와 ‘61-120분’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41명(28.1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해당 형제자매와 ‘180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47명(30.10%)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결혼지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 모두 부모님이 유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X^2 = 5.35, p < .05$ ). 응답자와 본인의 동거 여부는 동거하는 경우가 남성 114명(59.10%), 여성 116명(57.10%)이었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 연구참여자와 형제자매의 일반적 특성

	남성		여성		t/ $X^2$
	$(N_{\text{본인}} = 193)$		$(N_{\text{본인}} = 203)$		
	M	SD	M	SD	
<b>본인 특성</b>					
연령	27.65	4.32	27.61	4.14	t = 0.09
	(범위: 20 - 34세)		(범위: 20 - 34세)		
주관적 계층 (범위: 1 - 10)	4.80	1.53	4.74	1.40	t = 0.44
교육년수 (범위: 10.5 - 22년)	14.74	1.74	15.07	1.58	t = -1.93
월평균 근로소득	3.17	1.58	2.65	1.32	t = 3.14**
	n	%	n	%	
경제활동 참여 <sup>1)</sup>	142	76.60	149	73.40	$X^2 = 0.00$
월평균 근로소득 <sup>2)</sup>	99만원 이하		29	19.30	$X^2 = 15.20^*$
	100-199만원		15	10.00	
	200-299만원		53	35.30	
	300-399만원		27	18.00	
	400-499만원		13	8.70	
	500만원 이상		13	8.47	
기혼 <sup>1)</sup>	25	13.00	22	10.80	$X^2 = 0.42$
유자녀 <sup>1)</sup>	16	8.30	15	7.40	$X^2 = 0.11$
출생순위	첫째		94	48.70	$X^2 = 9.77^*$
	둘째		77	39.90	
	셋째 이상		22	11.40	
<b>형제자매 특성<sup>1)</sup></b>					
	$(N_{\text{형제자매}} = 305)$		$(N_{\text{형제자매}} = 286)$		
	M	SD	M	SD	
연령	27.30	6.45	26.57	5.83	t = 1.45
	(범위: 9 - 48세)		(범위: 11 - 44세)		
주관적 계층 (범위: 1 - 10)	5.14	1.66	4.93	1.53	t = 1.58
교육년수 (범위: 3 - 22년)	13.98	2.49	13.86	2.46	t = 0.59
	n	%	n	%	
여성 <sup>1)</sup>	157	51.50	143	50.00	$X^2 = 0.13$
경제활동 참여 <sup>1)</sup>	141	46.20	155	54.20	$X^2 = 3.75$
기혼 <sup>1)</sup>	56	18.40	36	12.60	$X^2 = 3.74^*$
유자녀 <sup>1)</sup>	51	16.70	30	10.50	$X^2 = 4.85^*$
거주 근접성 <sup>3)</sup>	동거		148	48.50	$X^2 = 12.10^{**}$
	30분 이내		34	21.70	
	31-60분		34	21.70	
	61-120분		41	28.10	
	121-180분		19	12.10	
	180분 넘게		26	16.60	
	거주지 모름		3	1.90	
<b>부모 특성</b>					
	M	SD	M	SD	
기혼 <sup>1)</sup>	175	90.70	168	82.80	$X^2 = 5.35^*$
부모-본인 동거 <sup>1)</sup>	114	59.10	116	57.10	$X^2 = 0.15$

\*  $p < .05$ . \*\*  $p < .01$ .

1) 표의 간결성을 위해 이분변수는 1로 코딩된 범주만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음

2) 월평균 근로소득은 경제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남성 193명, 여성 283명의 응답 분석

3) 동거하지 않는 남성 형제자매 157명, 여성 형제자매 160명에 대한 응답 분석

## 제 2 절 측정도구

### 1.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종속변수인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은 응답자의 모든 형제자매에 대해서 각각 측정하였다. 온정과 갈등은 Lanthier et al.(2000)이 개발하고 장휘숙(2009)이 번안한 The Short-Form Adult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 시점에서의 형제자매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로, Stoker et al.(1997)이 제작한 81문항의 원척도를 Lanthier et al.(2000)이 47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청년의 형제자매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여러 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Jensen et al., 2021; Walecka-Matyja, 2016).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온정(친밀감, 애정,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원, 지식, 유사성, 동경, 수용), 갈등(지배, 경쟁, 반목, 말다툼), 경쟁(모 편애, 부 편애)의 세 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 갈등, 경쟁의 하위척도 중 온정과 갈등 하위척도는 종속변수로, 경쟁은 독립변수로 활용했다.

온정 하위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나는 형제자매를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형제자매와 상의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5명의 형제자매에 대해 보고한 온정의 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한편 장휘숙(2009)의 번안한 하위 문항 중 ‘나는 이 형제자매의 사적인 관계(연애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문항은 원 척도의 내용에 충실하게 ‘사적인 관계(연애)’ 표현을 ‘대인관계(친구, 연인, 동료 등)’

로 변경하여 활용하였다.

갈등 하위척도는 총 17문항으로 ‘나와 이 형제자매는 말다툼을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개 문항의 산술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 간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갈등의 Cronbach’s  $\alpha$ 는 .98이었다.

## 2. 형제자매 특성

독립변수인 형제자매 특성은 2수준(응답자 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수와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순위 여부, 연령차이, 형제자매의 성별, 형제자매와 동거 여부, 본인의 도구적·경제적 지원제공 빈도, 형제자매의 도구적·경제적 지원제공 빈도였다. 형제자매 수는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형제자매의 순위 여부는 출생연도를 활용하여 형제자매가 응답자보다 출생연도가 빠른 경우인 순위를 1, 출생연도가 동일하거나 응답자보다 출생연도가 늦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다. 연령차이는 형제자매와 본인의 연령차이가 3세 미만 차이이면 1, 3세 이상 차이가 나면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다. 형제자매의 성별은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다. 형제자매와 동거 여부는 동거를 1, 비동거를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다. 본인의 지원제공 빈도는 본인이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빈도 1문항, 도구적 지원 빈도 1문항, 총 2문항의 산술평균을 활용하였다. 경제적 지원은 지난 1년 동안 생활비, 용돈, 등록금, 주거비 등에 대해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지원 빈도, 본인이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지원 빈도를 각각 1점에서 8점(1 = ‘거의 매일’, 8 = ‘거의 하지 않음’)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도구적 지원 빈도는 지난 1년 동안 청소, 빨래, 식사준비, 심부름, 병간호 등에 대해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지원과 본인이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지원 빈도를 각각 1점에서

8점(1 = ‘거의 매일’, 8 = ‘거의 하지 않음’)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은 모두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지원의 빈도가 잦음을 의미한다. 또, 형제자매의 지원제공 빈도는 형제자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1문항, 도구적 지원에 관한 1문항, 총 2문항의 산출평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인의 지원제공 빈도와 동일하게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원 제공 빈도가 잦음을 의미한다.

### 3. 부모자녀관계 특성

독립변수인 부모자녀관계는 2수준(응답자 수준) 변수인 어머니·아버지와 애정,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 변수인 어머니·아버지 편애인식이었다. 어머니·아버지와 애정은 Roberts and Bengtson(1993)이 개발하고 김주은과 이재림(2015)이 번안한 부모-자녀 애정 척도(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한 각 4문항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시점에서 어머니(아버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 등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리커트 척도(1 = ‘아주 조금’, 6 = ‘매우 많이’)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정 4문항, 아버지와의 애정 4문항의 산출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아버지와의 애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어머니 .90, 아버지 .92였다.

어머니·아버지 편애인식은 Lanthier et al.(2000)이 개발하고 장휘숙(2009)이 번안한 The Short-Form Adult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중 어머니의 편애인식 6문항, 아버지의 편애인식 6문항을 활용했다. 편애인식 문항은 ‘이 형제자매는 어머니(아버지)가 나보다 본인과 더 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다’와 같이 형제자매의 관점을 측정하는 문항과 ‘내 생각에, 어머니(아버지)는 나보다 이 형제자매와 심적으로

더 가깝다’ 와 같은 응답자의 관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형제자매의 관점을 측정하는 문항은 각 문항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5 = ‘그렇다. 본인과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로 측정하였다. 유사하게 응답자의 관점을 측정하는 문항도 각 문항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아니다. 나와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다’, 5 = ‘그렇다. 이 형제자매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계산방식(Lanthier et al., 2000; Ponappa et al., 2017)에 따라 부모가 자신을 선호하였는지 혹은 형제자매를 선호하였는지 방향(상대적 평가)과 상관없이 점수가 높을수록 편애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즉, 기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부모가 응답자와 해당 형제자매를 동등하게 대하는 경우(3점)는 0점으로, 부모가 응답자와 해당 형제자매 중 한 명을 약간 선호하는 경우(2점 및 4점)는 1점으로, 부모가 응답자와 해당 형제자매 중 한 명을 대부분 선호하는 경우(1점 및 5점)는 2점으로 코딩하였다.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 중 한 명을 더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아버지 편애인식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각각 .87, .88이었다.

####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2수준(응답자 수준) 변수인 본인의 연령, 교육년수, 경제활동 여부, 결혼지위, 부모-본인 동거 여부와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 변수인 형제자매의 연령, 교육년수, 경제활동 여부, 결혼지위였다.

본인 연령은 출생연도를 활용하여 계산한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인 교육년수는 학교급을 교육년수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본인 경제활동은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에 대해 ‘일하였다(1).’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있었다(휴가, 휴직 포함)(2).’ ‘일자리가 없었다(3).’ 으로 측정하였으며 ‘일하였다.’ 는 1,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있었다.’ 와 ‘일자리가 없었다.’ 는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본인 결혼지위는 ‘기혼’ 을 1, ‘미혼’, ‘이혼’, ‘별거’, ‘사별’ 을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 연령은 출생연도를 활용하여 계산한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 교육년수는 학교급과 학적상태를 교육년수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형제자매 경제활동 여부는 형제자매가 지난 1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한 경우 1,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처리하였다. 형제자매의 결혼지위는 ‘기혼’ 을 1, ‘미혼’, ‘이혼’, ‘별거’, ‘사별’ 을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본인 동거는 부모 두 분 중 한 명이라도 동거하는 경우는 1, 미동거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다.

###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 명의 응답자가 본인의 모든 형제자매의 정보를 보고해 위계적이고 내재된(nested) 구조이다. 데이터가 내재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개인 내 소속된 각 형제자매의 관측치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각 형제자매는 동일한 응답자와 부모를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의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개체 간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게 된다(강상진, 2016).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관계의 전반적인 경향을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상관관계는 <표 3-2>와 <표 3-3>과 같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분산팽창지수 VIF를 검토하였을 때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남성( $N_{\text{형제자매}} = 305, N_{\text{본인}} = 19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형제자매 수 [2]	1.00												
2. 형제자매 순위 여부(1= 순위) [1]	-.12*	1.00											
3. 연령차이(1 = 3세 미만 차이) [1]	.02	.56***	1.00										
4. 형제자매 성별(1 = 여성) [1]	-.07	.22***	.02	1.00									
5. 동거 여부(1 = 동거) [1]	.18**	-.16**	-.05	-.11	1.00								
6. 본인의 지원 빈도 [1]	.22***	-.09	-.07	.02	.36***	1.00							
7.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 [1]	.29***	.03	.02	-.03	.30***	.77***	1.00						
8. 어머니와의 애정 [2]	-.05	-.04	-.01	-.07	.13*	.09	.07	1.00					
9. 아버지와의 애정 [2]	-.13*	-.06	-.05	.00	.07	.13*	.14*	.68***	1.00				
10. 어머니 편애인식 [1]	.08	-.02	.07	-.01	-.04	.09	.13*	-.09	-.05	1.00			
11. 아버지 편애인식 [1]	.13*	.03	.08	.04	-.07	.14*	.16**	-.11*	-.07	.78***	1.00		
12. 형제자매 온정 [1]	.04	.09	.12*	.05	.01	.27***	.33***	.30***	.29***	-.10	-.02	1.00	
13. 형제자매 갈등 [1]	.34***	-.08	.00	-.13*	.20**	.30***	.36***	-.15**	-.12*	.18**	.20**	-.03	1.00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 =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 변수, [2] = 2수준(응답자 수준) 변수  
통제변수를 제외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임.

<표 3-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여성( $N_{\text{형제자매}} = 286, N_{\text{본인}} = 2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형제자매 수 [2]	1.00												
2. 형제자매 순위 여부(1= 순위) [1]	-.10	1.00											
3. 연령차이(1 = 3세 미만 차이) [1]	-.15**	.51**	1.00										
4. 형제자매 성별(1 = 여성) [1]	.16**	.13*	.08	1.00									
5. 동거 여부(1 = 동거) [1]	.11	-.20**	-.12*	.07	1.00								
6. 본인의 지원 빈도 [1]	.06	-.12*	-.05	.14*	.43**	1.00							
7.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 [1]	.09	.08	.09	.26**	.27**	.68**	1.00						
8. 어머니와의 애정 [2]	.04	-.01	-.07	-.01	.03	.10	.08	1.00					
9. 아버지와의 애정 [2]	.08	-.07	-.07	-.05	.04	.10	.12	.64**	1.00				
10. 어머니 편애인식 [1]	-.08	.07	.09	-.03	-.01	.00	.00	-.15*	-.21***	1.00			
11. 아버지 편애인식 [1]	-.15*	.10	.10	-.09	-.04	.00	.06	-.16**	-.18*	.61**	1.00		
12. 형제자매 온정 [1]	.03	-.02	-.05	.33**	.01	.25**	.24**	.38**	.24**	-.24**	-.29**	1.00	
13. 형제자매 갈등 [1]	.18**	-.02	-.05	.17**	.19**	.21**	.16**	-.07	-.09	.15**	.16**	.07	1.00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 =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 변수, [2] = 2수준(응답자 수준) 변수  
통제변수를 제외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임.

다층모형분석은 기초자료 분석과 연구문제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기초모형을 통해 각 수준에 존재하는 분산의 양을 파악하여 다층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기초모형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고도 불리며,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과 2수준(응답자 및 부모 수준)에 아무런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절편만을 투입해 설정한 모형이다. 기초모형을 통해 온정 및 갈등에 대한 전체 평균에 대한 추정치와 종속변수의 분산을 1수준과 2수준의 분산으로 구분하여 구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전체 분산 중 어느 정도가 형제자매 수준에 의해, 개인 수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층모형의 추정방식이 기존의 회귀분석과 다른 점은 1수준의 절편이 변량이 갖는 것으로 설정하여 오차의 변량이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다층모형에서는 <수식 3-1>과 같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각 층위의 분산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의 전체분산 중에서 2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층모형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으며, 1수준과 2수준에 설명변수를 투입하는 조건모형을 투입하는 조건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기초모형과 집단 내 상관계수 방정식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절차는 Stata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수식 3-1> 형제자매 온정 기초모형

1수준 모형:  $Warmth_{ij} = \beta_{0j} + e_{ij}$

2수준 모형:  $\beta_{0j} = \gamma_{00} + \mu_{0j}$

통합모형:  $Warmth_{ij} = \gamma_{00} + \mu_{0j} + e_{ij}, \quad e_{ij} \sim N(0, \sigma^2), \quad \mu_{0j} \sim N(0, \tau_{00})$

$Warmth_{ij}$  : j번째 개인 중 i번째 형제자매에 대한 온정 값

$\beta_{0j}$  : j번째 개인의 온정 값의 평균

$e_{ij} = \sigma^2$ : 온정의 형제자매 수준 변량

$\gamma_{00}$  : 전체 표본의 온정 평균

$\mu_{0j} = \tau_{00}$  : 온정의 개인수준 변량

<수식 3-2> 형제자매 갈등 기초모형

1수준 모형:  $Conflict_{ij} = \beta_{0j} + e_{ij}$

2수준 모형:  $\beta_{0j} = \gamma_{00} + \mu_{0j}$

통합모형:  $Conflict_{ij} = \gamma_{00} + \mu_{0j} + e_{ij}$ ,  $e_{ij} \sim N(0, \sigma^2)$ ,  $\mu_{0j} \sim N(0, \tau_{00})$

$Conflict_{ij}$  : j번째 개인 중 i번째 형제자매에 대한 갈등 값

$\beta_{0j}$  : j번째 개인의 갈등 값의 평균

$e_{ij} = \sigma^2$ : 갈등의 형제자매 수준 변량

$\gamma_{00}$  : 전체 표본의 갈등 평균

$\mu_{0j} = \tau_{00}$  : 갈등의 개인수준 변량

<수식 3-3> 집단 내 상관계수

$ICC = \frac{\tau}{\tau + \sigma^2} = \frac{\text{개인 간 분산}}{\text{전체 관찰분산}}$ ,  $\tau = 2$ 수준 분산,  $\sigma^2 = 1$ 수준 분산

$ICC$  =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기초모형을 통해 각 층위에 존재하는 분산의 양을 파악한 후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울기는 개인 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성별을 구분하여 형제자매관계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을 종속변수로 한 다층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활용되는 모든 연속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의 해결과 용이한 절편 값 해석을 위해 1수준과 2수준 변수 중 연속변수는 모두 전체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여 사용하였다. 1수준과 2수준의 연구변수를 투입한 연구모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아래의 <수식 3-4>와 같다.

## <수식 3-4> 연구모형

### 1) 1수준 모형

$$\begin{aligned} Y_{ij} = & \beta_{0j} + \beta_{1j}(\text{형제자매 순위 여부}) + \beta_{2j}(\text{형제자매와 연령차이}) \\ & + \beta_{3j}(\text{형제자매 성별}) + \beta_{4j}(\text{형제자매와 동거 여부}) \\ & + \beta_{5j}(\text{본인의 지원 빈도}) + \beta_{6j}(\text{형제자매의 지원 빈도}) \\ & + \beta_{7j}(\text{어머니 편애인식}) + \beta_{8j}(\text{아버지 편애인식}) \\ & + \beta_{9j}(\text{형제자매 연령}) + \beta_{10j}(\text{형제자매 교육년수}) \\ & + \beta_{11j}(\text{형제자매 경제활동 여부}) + \beta_{12j}(\text{형제자매 결혼지위}) \\ & + e_{ij} \end{aligned}$$

### 2) 2수준 모형

$$\begin{aligned} \beta_{0j} = & \gamma_{00} + \gamma_{01}(\text{형제자매 수}) + \gamma_{02}(\text{어머니와의 애정}) + \gamma_{03}(\text{아버지와의 애정}) \\ & + \gamma_{04}(\text{본인 연령}) + \gamma_{05}(\text{본인 교육년수}) + \gamma_{06}(\text{본인 경제활동 여부}) \\ & + \gamma_{07}(\text{본인 결혼지위}) + \gamma_{08}(\text{부모-본인 동거 여부}) + \mu_{ij} \end{aligned}$$

$$\beta_{qj} = \gamma_{q0} \quad [q \text{ for } 1, 2, 3, 4, \dots, 12]$$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형제자매 특성, 부모 자녀관계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형제자매 각각에 대해 보고한 온정(응답 점수 범위: 1-5)은 남성의 경우 평균 3.09점( $SD = 0.86$ ), 여성의 경우 평균 3.14점( $SD = 0.94$ )으로 남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형제자매 각각에 대해 보고한 갈등(응답 점수 범위: 1-5)은 남성의 경우 평균 2.16점( $SD = 0.89$ ), 여성의 경우 평균 2.14점( $SD = 0.73$ )으로 남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온정과 갈등 모두 응답자의 성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형제자매 특성 중 형제자매 수의 경우 남성은 평균 1.58명( $SD = 0.92$ ), 여성은 평균 1.42명( $SD = 0.65$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형제자매 수가 많았다( $t = 2.01, p < .05$ ). 형제자매 순위 여부는 특정 형제자매가 본인과 비교해 순위인 경우가 남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중 125명(40.98%), 여성 응답자의 형제자매 중 96명(33.60%)이었다. 남성 응답자는 본인이 순위(형, 오빠)인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 응답자는 본인이 손아래(여동생)인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차이는 응답자와 특정 형제자매가 3세 미만으로 연령이 비슷한 경우가 남성 응답자는 211명(69.20%), 여성 응답자는 189명(65.10%)으로 연령차이가 큰 경우보다 많았다. 형제자매의 성별을 살펴보면, 특정 형제자매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남성 응답자는 157명(51.50%)이었으며, 여성 응답자는 143명(50.00%)으로 여성 형제자매가 더 많았다. 동거 여부는 특정 형제자매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148명(48.50%), 여성은 126명(44.10%)으로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형제자매 순위 여부, 연령차이, 형제자매 성별, 동거 여부 모두 성

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인이 특정 형제자매에게 제공하는 도구적·경제적 지원제공 빈도(응답 점수범위: 1-8)는 남성의 경우 평균 2.57점( $SD = 1.55$ ), 여성의 경우 평균 2.52점( $SD = 1.51$ )이었다. 남녀 모두 중간 수준보다 낮은 빈도로 형제자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정 형제자매로부터의 도구적·경제적 지원제공 빈도(응답 점수범위: 1-8)는 남성 응답자는 평균 2.40점( $SD = 1.55$ ), 여성 응답자는 평균 2.10점( $SD = 1.41$ )으로 남녀 모두 중간 수준보다 낮은 빈도로 형제자매에게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특정 형제자매로부터 더 자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42, p < .05$ ).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가 보고한 어머니와의 애정(응답 점수범위: 1-6)은 남성의 경우 평균 4.49점( $SD = 1.02$ ), 여성의 경우 평균 4.41점( $SD = 1.10$ )으로 남녀 모두 중간보다 높게 어머니와 애정 수준을 인식하였다. 아버지와의 애정은(응답 점수범위: 1-6)은 남성의 경우 평균 4.05점( $SD = 1.22$ ), 여성의 경우 평균 3.70점( $SD = 1.33$ )으로 남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높게 아버지와의 애정을 인식하였다. 한편 어머니와의 애정에 대한 남녀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아버지와의 애정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3.05, p < .01$ ).

응답자와 특정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모가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를 측정한 편애인식의 경우, 어머니 편애인식(응답 점수범위: 0-2)은 남성의 경우 평균 0.36점( $SD = 0.50$ ), 여성의 경우 평균 0.53점( $SD = 0.52$ )으로 남녀 모두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어머니 편애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머니 편애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4.02, p < .001$ ). 아버지의 편애인식(응답 점수범위: 0-2)은 남성의 경우 평균 0.32점( $SD = 0.47$ ), 여성의 경우 평균 0.42점( $SD = 0.47$ )으로 남녀 모두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버지의 편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버지의 편애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t = -2.63, p < .01$ ).

〈표 4-1〉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

변수	응답범위	남성 ( $N_{\text{형제자매}} = 305$ )		여성 ( $N_{\text{형제자매}} = 286$ )		$t / X^2$
		$(N_{\text{본인}} = 193)$		$(N_{\text{본인}} = 203)$		
		$M$	$SD$	$M$	$SD$	
형제자매 온정 [1]	1-5	3.09	0.86	3.14	0.94	$t = -0.66$
형제자매 갈등 [1]	1-5	2.16	0.89	2.14	0.73	$t = 0.19$
<b>형제자매 특성</b>		$M$	$SD$	$M$	$SD$	
형제자매 수 [2]		1.58	0.92	1.42	0.65	$t = 2.01^*$
		(범위: 1-5명)		(범위: 1-4명)		
		$n$	%	$n$	%	
손위 형제자매 <sup>1)</sup> [1]		125	40.98	96	33.60	$X^2 = 3.47$
연령차이 3세 미만 <sup>1)</sup> [1]		211	69.20	189	65.10	$X^2 = 0.65$
여성 형제자매 <sup>1)</sup> [1]		157	51.50	143	50.00	$X^2 = 0.13$
형제자매와 동거 <sup>1)</sup> [1]		148	48.50	126	44.10	$X^2 = 1.19$
		$M$	$SD$	$M$	$SD$	
본인의 지원 빈도 [1]	1-8	2.57	1.55	2.52	1.51	$t = 0.30$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 [1]	1-8	2.40	1.55	2.10	1.41	$t = 2.42^*$
<b>부모자녀관계</b>		$M$	$SD$	$M$	$SD$	
어머니와의 애정 [2]	1-6	4.49	1.02	4.41	1.10	$t = 0.78$
아버지와의 애정 [2]	1-6	4.05	1.22	3.70	1.33	$t = 3.05^{**}$
어머니 편애인식 [1]	0-2	0.36	0.50	0.53	0.52	$t = -4.02^{***}$
아버지 편애인식 [1]	0-2	0.32	0.47	0.42	0.47	$t = -2.63^{**}$

\*  $p < .05$ . \*\*  $p < .01$ . \*\*\*  $p < .001$ .

1) 표의 간결성을 위해 이분변수는 1로 코딩된 범주만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음

[1] =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 변수, [2] = 2수준(응답자 수준) 변수

## 제 2 절 형제자매 특성 및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과의 관련성

### 1. 기초자료 분석결과

기초모형을 통해 다층모형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효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남성의 온정 평균 추정값은 3.03점이었으며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61로 온정의 총 분산 중 61%가 응답자 간 차이로, 39%가 형제자매 간 차이로 인해 설명되었다. 남성의 갈등 평

군 추정값은 2.04점이며 ICC는 .77로 갈등의 총 분산의 중 77%가 응답자 간 차이로, 23%가 형제자매 간 차이로 설명되었다.

여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 여성의 온정 평균은 3.14점이었으며 ICC는 .27이었다. 즉, 온정의 총 분산 중 27%가 응답자 간 차이로, 73%가 형제자매 간 차이로 인해 설명되었다. 여성의 갈등 평균 추정값은 2.08점이며 ICC는 .63로 갈등의 총 분산의 중 63%가 응답자 간 차이로 설명되었으며, 37%는 형제자매 간 차이로 설명되었다.

종합하면, 남성과 여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은 개별 형제자매 수준의 변수와 응답자 수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온정에 대한 ICC는 .27로 남성의 온정 및 갈등, 여성의 갈등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여성이 인식하는 형제자매에 대한 온정이 각각의 형제자매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온정 및 갈등의 기초모형 분석결과

남성	온정			갈등		
	Coefficient	SE	[95% CI]	Coefficient	SE	[95% CI]
Fixed effect						
절편( $\gamma_{00}$ )	3.03***	0.06	[2.93, 2.14]	2.04***	0.05	[1.93, 2.15]
Random effect	SD	Var	[95% CI]	SD	Var	[95% CI]
집단 간 변량( $\tau_{00}$ )	0.68	0.44	[0.35, 0.62]	0.73	0.53	[0.43, 0.68]
집단 내 변량( $\sigma^2$ )	0.54	0.29	[0.23, 0.37]	0.40	0.16	[0.13, 0.21]
ICC			0.61			0.77
여성	온정			갈등		
	Coefficient	SE	[95% CI]	Coefficient	SE	[95% CI]
Fixed effect						
절편( $\gamma_{00}$ )	3.14***	0.06	[3.03, 2.25]	2.08***	0.05	[2.00, 2.18]
Random effect	SD	Var	[95% CI]	SD	Var	[95% CI]
집단 간 변량( $\tau_{00}$ )	0.48	0.23	[0.11, 0.49]	0.54	0.34	[0.26, 0.45]
집단 내 변량( $\sigma^2$ )	0.80	0.64	[0.50, 0.81]	0.44	0.19	[0.15, 0.25]
ICC			0.27			0.63

\*\*\*  $p < .001$ .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집단 내 상관계수) = 집단 간 변량/(집단 내 변량 + 집단 간 변량)

##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먼저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온정에 대한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면, 남성의 온정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형제자매 특성은 1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순위 여부( $B = -.36, p < .05$ ),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 $B = .14, p < .01$ )가 유의하였다. 부모자녀관계 특성 중에는 2수준 변수인 어머니와의 애정( $B = .16, p < .05$ ), 1수준 변수인 어머니 편애인식( $B = -.41, p < .01$ )이 유의하였다. 즉, 남성은 특정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지원의 빈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본인과의 관계를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특정 형제자매가 본인보다 순위, 즉 형이나 누나인 경우, 어머니가 본인과 특정 형제자매 둘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수록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낮았다.

여성의 온정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형제자매 특성은 1수준 변수인 형제자매의 성별( $B = .48, p < .001$ ), 본인이 제공한 지원 빈도( $B = .15, p < .01$ )가 유의했다. 부모자녀관계 특성 중에서는 2수준 변수인 어머니와의 애정( $B = .29, p < .001$ ), 1수준 변수인 아버지 편애인식( $B = -.37, p < .01$ )이 유의했다. 즉, 특정 형제자매의 성별도 여성으로 자매구성일 경우, 본인이 특정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지원 빈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본인과의 관계를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온정 수준이 높았다. 반면, 아버지가 본인과 특정 형제자매 둘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수록 온정 수준이 낮았다.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갈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형제자매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는 형제자매 특성은 2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수( $B = .14, p < .05$ )였으며, 부모자녀관계 특성은 2수준 변수인 어머니와의 애정( $B = -.18, p < .05$ )이었다. 즉, 남성은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았으며, 어머니와 본인과의 관계를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갈등 수준이 낮았다.

여성의 형제자매 간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형제자매 특성은 2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수( $B = .15, p < .05$ ), 1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성별( $B = .21, p < .01$ )이었다. 부모자녀관계 특성은 1수준 변수인 아버지 편애인식( $B = .22, p < .05$ )이 유의했다. 즉, 여성은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특정 형제자매의 성별도 여성으로 자매구성일 경우, 아버지가 본인과 특정 형제자매 둘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수록 갈등 수준이 높았다.

<표 4-3>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에 관한 다층 회귀분석 결과

	남성( $N_{\text{형제자매}} = 305, N_{\text{본인}} = 193$ )				여성( $N_{\text{형제자매}} = 286, N_{\text{본인}} = 203$ )			
	온정		갈등		온정		갈등	
	<i>B</i>	<i>SE</i>	<i>B</i>	<i>SE</i>	<i>B</i>	<i>SE</i>	<i>B</i>	<i>SE</i>
Fixed effect								
절편( $\gamma_{00}$ )	3.05***	0.19	2.12***	0.19	3.15***	0.18	1.92***	0.16
<b>형제자매 특성</b>								
형제자매 수 [2]	-0.01	0.06	0.14*	0.06	-0.07	0.07	0.15*	0.07
형제자매 순위 여부(1= 순위) [1]	-0.36*	0.13	-0.04	0.12	-0.24	0.16	0.07	0.14
연령차이(1= 3세 미만 차이) [1]	0.22	0.12	0.00	0.11	-0.26	0.14	0.01	0.11
형제자매 성별(1= 여성) [1]	0.07	0.08	-0.06	0.07	0.48***	0.09	0.21**	0.08
동거 여부(1= 동거) [1]	0.01	0.14	0.09	0.13	-0.10	0.13	0.06	0.11
본인의 지원 빈도 [1]	0.07	0.04	0.05	0.04	0.15**	0.04	0.06	0.04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1]	0.14**	0.04	0.05	0.04	0.02	0.05	0.01	0.04
<b>부모자녀관계 특성</b>								
어머니-본인 애정 [2]	0.16*	0.07	-0.18*	0.07	0.29***	0.06	0.00	0.06
아버지-본인 애정 [2]	0.08	0.06	0.04	0.06	-0.03	0.05	-0.04	0.05
어머니 편애인식 [1]	-0.41**	0.13	0.14	0.13	-0.17	0.11	0.04	0.10
아버지 편애인식 [1]	0.11	0.14	0.04	0.13	-0.37**	0.12	0.22*	0.10
<b>통제변수</b>								
본인 연령 [2]	-0.02	0.02	-0.03	0.02	-0.03	0.03	0.01	0.02
본인 교육년수 [2]	-0.05	0.04	-0.05	0.04	0.01	0.04	-0.05	0.04
본인 경제활동 여부(1= 경제활동) [2]	0.17	0.13	-0.03	0.14	-0.07	0.12	0.07	0.11
본인 결혼지위(1= 기혼) [2]	0.18	0.18	0.36	0.18	0.09	0.18	-0.06	0.17
형제자매 연령 [1]	0.03	0.02	0.02	0.02	0.04	0.02	-0.02	0.02
형제자매 교육년수 [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형제자매 경제활동 여부(1= 경제활동) [1]	0.05	0.10	-0.08	0.09	0.21	0.11	-0.01	0.09
형제자매 결혼지위(1= 기혼) [1]	0.05	0.12	-0.05	0.12	0.18	0.16	0.04	0.14
부모-본인 동거여부(1= 동거) [2]	-0.29	0.15	0.10	0.15	-0.10	0.12	0.03	0.11
Random effect	VAR	[95% CI]	VAR	[95% CI]	VAR	[95% CI]	VAR	[95% CI]
집단 간 변량( $\tau_{00}$ )	0.33	[0.23, 0.48]	0.41	[0.31, 0.55]	0.20	[0.12, 0.38]	0.27	[0.19, 0.39]
집단 내 변량( $\sigma^2$ )	0.23	[0.18, 0.31]	0.17	[0.13, 0.23]	0.37	[0.27, 0.50]	0.21	[0.16, 0.29]
-2 Res Log Likelihood		-347.95		-337.78		-347.64		-315.12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1] = 1수준(개별 형제자매 수준) 변수, [2] = 2수준(응답자 수준) 변수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의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중심으로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응답자별로 모든 형제자매 각각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응답자 수준과 개별 형제자매 수준으로 층위를 가진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로 형제자매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인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 온정의 경우 남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형제자매 갈등의 경우 남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온정과 갈등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휘숙(2009)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형제자매 온정 수준에는 성차가 없었으나,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한 결과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온정 및 갈등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24-34세 청년으로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ensen et al., 2018)와는 일치한다.

형제자매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형제자매가 3세 미만으로 연령이 비슷한 경우가 연령차이가 큰 경우보다 많았다. 동거 여부는 남녀 모두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청년의 경우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는 서구의 선행연구(Conger & Little, 2010)와 일치한다. 한편 형제자매 순위 여부, 연령차이, 형제자매 성별, 동거 여부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과 특정 형제자매의 도구적·경제적 지원제공 빈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중간 수준보다 낮은 빈도로 형제자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녀 모두 유사하게 낮은 빈도로 형제자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정 형제자매로부터의 받은 도구적·경제적 지원제공 빈도는 남녀 모두 중간 수준보다 낮은 빈도

로 형제자매에게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특정 형제자매로부터 더 자주 지원을 받고 있었다. 본인과 특정 형제자매 간에는 중간 수준보다 낮은 빈도로 지원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청년 시기 동안 낮은 빈도로 형제자매와 자원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White, 2001)와 유사하다. 또한 여성이 형제자매와 더 자주 지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 서구의 선행연구(Voorpostel & Blieszner, 2008)와는 상이하지만 남성이 형제자매와 지원을 더 자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 중국의 선행연구(Ge & Jiang, 2021)와는 유사하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애정 수준은 남녀 모두 중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애정에 대한 남녀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애정 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아버지와의 애정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편애인식의 경우, 남녀 모두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어머니·아버지의 편애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머니·아버지의 편애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차별적인 부모의 태도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여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어머니·아버지 편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기, 중노년기 편애인식에 관한 서구의 선행연구(Gilligan et al., 2013; Mchale et al., 2000; Tamrouti-Makkink et al., 2004)와 일치한다.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특성(형제자매 수, 형제자매 순위 여부, 연령차이, 성별, 동거 여부, 본인 및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의 온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형제자매 간 온정과 관련이 있는 1수준 변수는 형제자매의 순위 여부, 형제자매의 지원 빈도였다. 온정과 관련 있는 2수준 변수는 없었다. 남성은 보고한 형제자매가 동생일 경우 온정 수준이 높았다. 남성은 장유유서의 유교적 가족규범에 따라 순위 형제자매는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순위 형제자매를 우대 또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인이 형이나 오빠인

경우에 동생에 대한 온정 수준이 높은 반면, 남성 본인이 남동생인 경우에는 형이나 누나를 어렵게 여기게 되어 상대적으로 온정 수준을 낮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생이 형제자매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서구의 연구결과(Bat-Chava & Martin, 2002)와는 상이하다. 서구에서는 형제자매와 비교적 평등한 형제자매관계를 맺기 때문에 상대적 위계를 구성하는 출생순위 및 순위 여부는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Michalski & Shackelford, 2002)도 있다. 그러나 유교적인 가족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남성을 포함한 형제자매관계에서 상대적 지위나 위계는 형제자매 간 온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 형제자매에 대한 본인의 지원제공 빈도는 온정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해당 형제자매로부터 지원을 자주 받을 때 관계를 온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과거에 비해 젠더 규범이 약화되었지만, 현재의 청년 남성의 경우 가족에서 우대받고 성장하였거나, 성역할 규범에 따라 여성에 비해 가족을 돌보거나 배려하는 행동에 대한 사회화가 덜 되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형제자매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관계를 온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과 관련된 1수준 변수는 형제자매의 성별과 본인의 지원제공 빈도였다. 온정과 관련 있는 2수준 변수는 없었다. 해당 형제자매가 여성, 즉 언니나 여동생일 경우, 온정 수준이 높았다. 남성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손위의 언니나 오빠인지 손아래인 동생인지의 여부는 온정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상대적 위계를 구성하는 형제자매 간의 특성이 청년 남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청년의 경우 여성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더 온정적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 공통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동성의 형제자매는 이성의 형제자매보다 더 가깝고 온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임미혜, 지연경, 2016). 특히 자매들끼리는 감정을 공유하고 강한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자매구성이 형제자매관계를 온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난다(Barroso, 2011; Jensen et al., 2018; Van Volkom et al., 2011; Weaver et al., 2003; Whiteman et al., 2011). 앞서 형제자매로부터 지원을 자주 받았을 때 관계를 온정적으로 인식하였던 남성의 결과와는 달리 여성은 본인이 해당 형제자매에게 자주 지원을 했을 때 온정 수준이 높았다. 여성은 형제자매관계에서 피동적으로 지원을 받기 보다는 형제자매를 지원할 때 관계를 더 온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형제자매관계 내 사회화된 역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est & Zimmerman, 1987). 여성은 주로 관계에서 돌봄자 역할로 사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타적인 동기에 근거해 본인이 형제자매를 챙겨주며 뿌듯함을 느끼고(Branje et al., 2004), 이는 형제자매 간 온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형제자매 간 갈등과 관련 있는 형제자매 특성은 남성의 경우 2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수였으며, 여성의 경우 2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수와 1수준 변수인 형제자매 성별이었다. 청년 남성과 여성은 공통적으로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았다.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형제자매 간의 온정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서구의 선행연구(Lawson & Brossart, 2004; Riggio, 2006)와는 상이한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갈이론 관점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애정과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분배받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이는 부모의 애정과 자원에 대한 형제자매 간 다툼으로 이어져 높은 수준의 갈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해당 형제자매의 성별도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형제자매도 여성일 때, 즉 자매구성일 경우 남매구성일 때보다 갈등 수준이 높았다. 이는 형제나 남매에 비해 자매관계에서 서로 친밀한 모습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갈등적이기도 한 양가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성별과 본인의 성별이 여성으로 일치할 때 더 많은 온정과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임미혜, 지연경, 2016; Campione-Barr & Killoren, 2019).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부모자녀관계 특성(어머니·아버지와의 애정, 어머니·아버지의 편애인식)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형제자매 간 온정의 경우, 남성은 2수준 변수인 어머니와의 애정과 1수준 변수인 어머니 편애인식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고, 여성은 2수준 변수인 어머니와의 애정과 1수준 변수인 아버지 편애인식이 유의했다. 청년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갈등 수준도 낮았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애정은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간 온정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주 양육자가 대개 어머니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자녀의 성별과 관계 없이 어머니와의 애정적인 관계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은 어머니가 본인과 해당 형제자매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 때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낮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어머니 편애인식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편애가 남성보다 여성의 형제자매관계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Suitor et al., 2016)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편애가 여성의 형제자매와의 온정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는 같은 결과이다(Buist et al., 2002). 여성은 어머니가 둘 중 한 명을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와의 관계 사이에서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Charles & Carstensen, 2008; Coats & Blanchard-Fields, 2008; Lefkowitz & Fingerman, 2003).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남성 형제자매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문제를 덜 제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 본인이 형제자매에 비해 선호를 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향성이 더 높았으며,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이유를 인식하고 수용했을 때 형제자매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et al., 2021; Suitor et al., 2020). 반면 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둘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 때 이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형제자매 간 온정에 더 민감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에 비해 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opold et al., 2014; Suitor & Pillemer, 2006; Suitor et al., 2013, 2016). 한국의 맥락에서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청년 남성은 여성 형제자매에 비해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나, 어머니가 자신을 덜 선호할 경우 불만을 갖고 이를 형제자매관계에 투영했을 수도 있다(Poonam & Punia, 2012). 한편, 어머니 편애인식은 청년 남녀의 형제자매 간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어머니 편애인식이 중년남녀의 형제자매 간 긴장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Gilligan et al., 2013)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편애는 남성의 낮은 수준의 형제자매 간 온정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편애는 여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즉, 본인과 성별이 다른 부모의 편애가 형제자매관계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조합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형제자매관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illigan et al., 2013; Raley & Bianchi, 2006; Salmon, 2003; Suitor & Pillmer, 2013)와 일치한다. 여성은 본인과 해당 형제자매 중 아버지가 둘 중 한 명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할 때,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이 낮았으며, 갈등 수준이 높았다. 즉 아버지 편애는 여성의 형제자매관계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포함된 성별구성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형제구성에 비해 여성이 포함된 성별구성에서 아버지가 선택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icirelli, 1991; Doron & Sharabi-Nov, 2016; McHale et al., 1999). 이에 아버지의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더 민감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여성의 발달과 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달리 성인이 된 여성 자녀의 정서적 측면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자존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청년 여성의 경우 어머

니 편애인식은 온정 및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없지만, 아버지의 공정하지 않은 대우는 여성의 온정 및 갈등에 더 민감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형제자매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에 제공하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형제자매 특성 중에서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청년 남녀 모두 갈등 수준이 높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형제자매 수가 많을 경우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의 태도를 조정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남성의 경우 순위 형제자매, 즉 형이나 누나에 대한 온정 수준이 동생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가족에서 남성을 포함한 형제자매관계에서는 상대적인 위계나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의 경우 본인의 지원제공 빈도가 많을수록 온정 수준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형제자매의 지원제공 빈도가 많을수록 온정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온정 수준이 지원의 방향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본인이 지원을 많이 할수록 친밀한 관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부담감 또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형제자매에게 많이 받을수록 형제자매에 대한 의존 및 부채감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 형제자매 간 지원 빈도에 있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자녀관계 측면에서, 남성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정적인 관계가 형제자매 간 높은 온정 수준과 낮은 갈등 수준과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높은 온정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와의 애정적인 관계가 청년 남녀의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 형성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시기에도 어머니의 편애가 남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통해 청년 남성을 포함한 형제자매구성에서 어머니의 공정한 대우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의 형제자매 간 온정은 어머니와의 애정, 아버지의 편애인식과, 갈등

은 아버지의 편애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청년 여성의 긍정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위해 어머니와의 애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 현장에서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개입 지점을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응답자가 본인의 모든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보고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응답자의 관점만을 토대로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응답자가 보고한 온정 및 갈등과 상대방인 형제자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제자매 쌍(dyad) 단위로 분석하여 응답자와 형제자매의 인식 차이나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고, 관계에 대한 역동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횡단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변화나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경험이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은 청년의 생애과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형제자매에 대한 인식은 변화할 수 있으며, 과거의 부모자녀관계가 종단적으로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관계가 좋으면 부모와의 관계를 더 애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특성, 본인 및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의 관련성을 직접효과를 통해 살펴보았으나, 두 변수 간의 관계에는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편애인식과 형제자매 온정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정적인 관계가 조절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Boll et al., 2005).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특성,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나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인 특성과 청년의 형제자매 온정 및 갈등의 매커니즘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한국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온정 및 갈등과 관련 있는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청년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형제자매관계 연구는 주로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청년시기 개인의 삶에 형제자매관계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어떤 측면이 청년의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초동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 각 형제자매의 맥락, 본인 및 부모의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연관성을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성별구성, 연령차이, 출생순위와 같은 개별 형제자매 수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그러나 형제자매 수준의 특성과 더불어 응답자 수준의 특성과 연관성 탐색을 통해 어떤 특성이 형제자매 간 온정 및 갈등과 관련이 있는지 다차원적인 요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시도는 미진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청년시기 형제자매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위체계 간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다층모형분석을 활용해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완하였다. 기존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명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형제자매에 대한 온정 및 갈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 대한 특성을 수집하여 청년의 모든 형제자매관계를 반영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상진(2016). **다층모형**. 학지사.
- 김은정(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http://doi.org/10.21478/family.27.1.201503.004>
- 김주은, 이재림(2015).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 유형화: 잠재 프로파일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3(4), 119-145.  
<http://doi.org/10.7466/JKHMA.2015.33.4.119>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0(3), 105-125.
- 설경옥, 김유나(2018).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91-110. <http://doi.org/10.35574/KJDP.2018.03.31.1.91>
- 윤정민, 이은주, 이승연 (2019). 중학생의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성격적 자기비난, 대처효능감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23-41.  
<http://doi.org/10.35574/KJDP.2019.06.32.2.23>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32.
- 이여봉, 김현주(2014). 가족 내 분배정의 원칙의 적용과 모-자녀 관계의 질: 중학생 및 대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2), 1-34.
- 임미혜, 지연경(2016). 성인기 발달단계에 따른 형제자매의 온정성과 갈등. **가족과 문화**, 28, 30-56.  
<http://doi.org/10.21478/family.28.4.201612.002>
-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1), 101-121.

- 장휘숙(2009).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33-48.
- 최현주(2021).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과 거부민감성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715-1737.  
<http://doi.org/10.23844/kjcp.2021.11.33.4.1715>
- 통계청(2023. 01.04)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
- Aldrich, L., Nomaguchi, K., & Fetto, M. N. (2022). Life course statuses and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43(5), 1235-1262.  
<https://doi.org/10.1177/0192513X211022401>
- Andersson, L. (2020). Oh half-brother, where art thou? The boundaries of full-and half-sibling interaction. *Demographic Research*, 43, 431-460. <https://doi.org/0.4054/DemRes.2020.43.16>
- Antonucci, T. C. (2001). Social relations: An examination of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pp. 427-453). Academic Press.
- Barberis, N., Verrastro, V., Costa, S., & Gugliandolo, M. C. (2022). Sibling relationships and social development in youth and emerging adult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Family Issues*, 43(9), 2398-2419.  
<https://doi.org/10.1177/0192513X211030933>
- Barroso, M. M. (2011). Social perceptions of siblings' sexual composition: Evidence from portuguese youth.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2(5), 687-702.  
<https://doi.org/10.3138/jcfs.42.5.687>

- Bascoe, S. M., Davies, P. T., & Cummings, E. M. (2012). Beyond warmth and conflict: The developmental utility of a boundary conceptualization of sibling relationship processes. *Child development, 83*(6), 2121-2138.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2.01817.x>
- Bat-Chava, Y., & Martin, D. (2002). Sibling relationships for deaf children: The impact of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Rehabilitation psychology, 47*(1), 73-91.  
<https://doi.org/10.1037/0090-5550.47.1.73>
- Bedford, V. H. (1989). Ambivalence in adult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10*(2), 211-224.  
<https://doi.org/10.1037/0893-3200.11.2.210>
- Bellin, M. H., & Rice, K. M. (2009). Individual, family, and peer factor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hips in families of youths with spina bifid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39-47. <https://doi.org/10.1037/a0014381>
- Bertogg, A., & Szydlik, M. (2016). The closeness of young adult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Swiss Journal of Sociology, 42*(1), 41-59. <https://doi.org/10.1515/sjs-2016-0003>
- Bleske-Rechek, A., & Kelley, J. A. (2014). Birth order and personality: A within-family test using independent self-reports from both firstborn and laterborn sibling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15-18. <https://doi.org/10.1016/j.paid.2013.08.011>
- Boll, T., Ferring, D., & Filipp, S. H. (2003). Perceived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in middle adulthood: Curvilinear relations with individuals' experienced relationship quality to sibling and par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472-487.  
<https://doi.org/10.1037/0893-3200.17.4.472>
- Boll, T., Ferring, D., & Filipp, S. H. (2005). Effects of parental

- differential treatment on relationship quality with siblings and parents: Justice evaluations as mediators. *Social Justice Research, 18*, 155–182. <https://doi.org/10.1007/s11211-005-7367-2>
- Bowerman, C. E., & Dobash, R. M. (1974). Structural variations in inter-sibling aff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54. <https://doi.org/10.2307/350993>
- Branje, S. J., Van Lieshout, C. F., Van Aken, M. A., & Haselager, G. J. (2004). Perceived support in sibling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8), <http://doi.org/10.1111/j.1469-7610.2004.00845.x>
- Buist, K. L., Deković, M., & Prinzie, P. (2013).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and psychopatholog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1), 97–106. <http://doi.org/10.1016/j.cpr.2012.10.007>
- Cabrera, N. J. (2020). Father involvement, father-child relationship, and attachment in the early yea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2*(1), 134–138. <https://doi.org/10.1080/14616734.2019.1589070>
- Campione-Barr, N., & Killoren, S. E. (2019). Love them and hate them: The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of ambivalence in the adolescent sibling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3*(4), 221–226. <https://doi.org/10.1111/cdep.12345>
- Campione-Barr, N., & Smetana, J. G. (2010). “Who said you could wear my sweater?” Adolescent siblings’ conflicts and associations with relationship quality. *Child Development, 81*(2), 464–47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407.x>
- Cicirelli, V. G. (1991). Sibling relationships in adulthood. *Marriage & Family Review, 16*(3–4), 291–310. [https://doi.org/10.1300/J002v16n03\\_05](https://doi.org/10.1300/J002v16n03_05)
- Cicirelli, V. G. (1995). Sibling relationship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 In Victor G. Cicirelli V. G (Eds.),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pp. 69–85). Springer, Boston, MA.
- Charles, S. T., & Carstensen, L. L. (2008). Unpleasant situations elicit different emotional responses in younger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3*(3), 495–504.  
<https://doi.org/10.1037/a0013284>
- Chen, BB., Tan, JP. (2021). Brothers and sisters in China: No longer the one-child family. In Buchanan, A., Rotkirch, A (Eds.), *Brothers and Sisters*. Palgrave Macmillan, Cham.  
[https://doi.org/10.1007/978-3-030-55985-4\\_11](https://doi.org/10.1007/978-3-030-55985-4_11)
- Coats, A. H., & Blanchard-Fields, F. (2008). Emotion regulation in interpersonal problems: the role of cognitive-emotional complexity, emotion regulation goals, and expressivity. *Psychology and aging, 23*(1), 39. <https://doi.org/10.1037/0882-7974.23.1.39>
- Conger, K. J., & Little, W. M. (2010).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4*(2), 87–94. <http://doi.org/10.1111/j.1750-8606.2010.00123.x>
- Conger, K. J., Conger, R. D., & Elder, G. H. (2020). Sibling relations during hard times. In Katherine J. Conger, Rand D. Conger, Glen H. Elder (Eds.), *Families in troubled times* (pp. 235–252). Routledge.
- Cox, M. J., &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243–267.
- de Bel, V., Kalmijn, M., & van Duijn, M. A. (2019). Balance in family triads: How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ffect the adult sibling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Issues, 40*(18), 2707–272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48.1.243>
- Derkman, M., Engels, R. C., Kuntsche, E., van der Vorst, H., & Scholte, R. H. (2011).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sibling

- relationships and parental suppor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4), 490–501.  
<https://doi.org/10.1007/s10964-010-9576-8>
- Doron, H., & Sharabi-Nov, A. (2016). Siblinghood, gender, and families: Are sisters more close and unified than brothers? *The Family Journal*, 24(4), 385–394. <https://doi.org/10.1177/1066480716663174>
- Doughty, S. E., Lam, C. B., Stanik, C. E., & McHale, S. M. (2015). Links between sibling experiences and romantic competence from adolescence through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11), 2054–2066.  
<https://doi.org/10.1007/s10964-014-0177-9>
- Eriksen, S., & Gerstel, N. (2002). A labor of love or labor itself: Care work among adult brothers and sisters. *Journal of Family Issues*, 23(7), 836–856. <https://doi.org/10.1177/019251302236597>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http://doi.org/10.1177/001872675400700202>
- Fingerman, K. L., Huo, M., & Birditt, K. S. (2020). Mothers, fathers, daughters, and sons: Gender differences in adults' intergenerational ties. *Journal of Family Issues*, 41(9), 1597–1625.  
<https://doi.org/10.1177/0192513X19894369>
- Fingerman, K., Miller, L., Birditt, K., & Zarit, S. (2009). Giving to the good and the needy: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220–123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9.00665.x>

- Fosco, G. M., & Grych, J. H. (2010). Adolescent triangulation into parental conflicts: Longitudinal implications for appraisals and adolescent-parent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254-26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697.x>
- Ge, T., & Jiang, Q. (2021). Sibling relationships of older adults in China: The role of gender composition and birth order. *Current Psychology*, 1-11. <https://doi.org/10.1007/s12144-021-02378-z>
- Gilbert, P., & Gerlsma, C. (1999). Recall of shame and favouritism in relation to psychopatholog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4), 357-373. <https://doi.org/10.1348/014466599162962>
- Gilligan, M., Stocker, C. M., & Jewsbury Conger, K. (2020). Sibling relationships in adulthood: Research findings and new frontier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3), 305-320. <https://doi.org/10.1111/jftr.12385>
- Gilligan, M., Suitor, J. J., Kim, S., & Pillemer, K. (2013). Differential effects of perceptions of mothers' and fathers' favoritism on sibling tension in adulthood.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4), 593-598. <http://doi.org/10.1093/geronb/gbt039>
- Goodwin, M. P., & Roscoe, B. (1990). Sibling violence and agonistic interactions among middle adolescents. *Adolescence*, *25*(98), 451-467. <http://doi.org/10.1093/geronb/gbt039>
- Guan, S. S. A., & Fuligni, A. J. (2016). Changes in parent, sibling, and peer support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6*(2), 286-299. <https://doi.org/10.1111/jora.12191>
- Gungordu, N., & Hernandez-Reif, M. (2022). Sibling relationship dynamics relate to young adults' empathic responding. *Journal*

*of Family Studies*, 28(2), 785–799.

<https://doi.org/10.1080/13229400.2020.1753560>

Hamwey, M. K., Rolan, E. P., Jensen, A. C., & Whiteman, S. D. (2019).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8), 2487–2506.

<https://doi.org/10.1177/0265407518789514>

Hank, K., & Steinbach, A. (2018).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intra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adult siblings. *Social Science research*, 76, 55–64.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8.08.003>

Healey, M. D., & Ellis, B. J. (2007). Birth order,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Tests of the family-niche model of personality using a within-family methodolog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1), 55–59.

<https://doi.org/10.1016/j.evolhumbehav.2006.05.003>

Hill, M. (2000). “Asian values as reverse orientalism: singapore.” *Asian Pacific Viewpoint*, 41(2), 177–190.

<https://doi.org/10.1111/1467-8373.00114>

Hollifield, C. R., & Conger, K. J. (2015). The role of siblings and psychological needs in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during emerging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3(3), 143–153.

<https://doi.org/10.1177/2167696814561544>

Hong, F. Y., Cheng, K. T., & Tran, T. P. T. (2019).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emotionally painful events in schools and families, self-esteem, and health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6(4), 295–303. <https://doi.org/10.1007/s10804-018-9310-4>

Hughes, E. K., Burton, C., Le Grange, D., & Sawyer, S. M. (2018). The

participation of mothers, fathers, and siblings in family-based treatment for adolescent anorexia nervosa.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7(sup1), S456–S466

<http://doi.org/10.1080/15374416.2017.1390756>

- Jensen, A. C., Jorgensen-Wells, M. K. A., Pickett, J. M., Andrus, L. E., Leiter, V. K., Graver, H., ... & Hanna-Walker, V. R. (2021). Marital relationships spillover and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A multilevel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3(3), 347–365. <https://doi.org/10.1111/jftr.12425>
- Jensen, A. C., Whiteman, S. D., & Fingerman, K. L. (2018). “Can’t live with or without them” : Transitions and young adults’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3), 385. <http://doi.org/10.1037/fam0000361>
- Jensen, A. C., Whiteman, S. D., Fingerman, K. L., & Birditt, K. S. (2013). “Life still isn’t fair” :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of young adult sibling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2), 438–452. <https://doi.org/10.1111/jomf.12002>
- Kalmijn, M., & Leopold, T. (2019). Changing sibling relationships after parents’ death: The role of solidarity and kinkeep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1(1), 99–114. <https://doi.org/10.1111/jomf.12509>
- Knipscheer, K., & Van Tilburg, T. (2013). Generational contact and support among late adult siblings within a verticalized family. *Kinship and cohort in an aging socie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59–76.
- Kowal, A. K., Krull, J. L., & Kramer, L. (2006). Shared understanding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in families. *Social Development*, 15(2), 276–295.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6.00341.x>
- Kowal, A., & Kramer, L. (1997).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ental

- differential treatment. *Child Development*, 68(1), 113-126.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7.tb01929.x>
- Lanthier, R., Stocker, C., & Furman, W. (2000). *Short-form adult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ASRQ-S)*. Unpublished manuscrip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 Lawson, D. M., & Brossart, D. F. (2004).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and sibling struc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4), 472-482.  
<https://doi.org/10.1002/j.1556-6678.2004.tb00336.x>
- Lefkowitz, E. S., & Fingerman, K. L. (2003).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feelings and behaviors in mother-daughter ties in late 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607-617.  
<https://doi.org/10.1037/0893-3200.17.4.607>
- Leopold, T., Raab, M., & Engelhardt, H. (2014). The transition to parent care: Costs, commitments, and caregiver selection amo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2), 300-318.  
<https://doi.org/10.1111/jomf.12099>
- Lindell, A. K., Campione-Barr, N., & Greer, K. B. (2014).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 sibling conflict and relationship quality during the transition to college. *Emerging Adulthood*, 2(2), 79-91. <https://doi.org/10.1177/2167696813502778>
- McHale, S. M., Crouter, A. C., & Tucker, C. J. (1999). Family context and gender role socialization in middle childhood: Comparing girls to boys and sisters to brothers. *Child development*, 70(4), 990-1004.  
<https://doi.org/10.1111/1467-8624.00072>
- McHale, S. M., Updegraff, K. A., & Whiteman, S. D. (2012). Sibling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5), 913-930.

<http://doi.org/10.1111/j.1741-3737.2012.01011.x>

- Michalski, R. L., & Euler, H. A. (2008).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sibling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185-204.
- Michalski, R. L., & Shackelford, T. K. (2002). An attempted replic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irth order and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2), 182-188.  
<http://doi.org/10.1006/jrpe.2001.2350>
- Milevsky, A. (2019). Parental facto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ibling dynamics: A mediational model in emerging adulthood. *Marriage & Family Review*, 55(5), 476-492.  
<https://doi.org/10.1080/01494929.2018.1518822>
- Milevsky, A., & Heerwagen, M. (2013). A phenomenological examination of sibling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Marriage & Family Review*, 49(3), 251-263.  
<https://doi.org/10.1080/01494929.2012.762444>
- Milevsky, A., Smoot, K., Leh, M., & Ruppe, A. (2005). Familial and contextual variables and the nature of sibling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Marriage & Family Review*, 37(4), 123-141.  
[https://doi.org/10.1300/J002v37n04\\_07](https://doi.org/10.1300/J002v37n04_07)
- Nelson, L. J., Padilla-Walker, L. M., Christensen, K. J., Evans, C. A., & Carroll, J. S. (2011).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An examination of parenting clusters and correl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6), 730-743.  
<https://doi.org/10.1177/2167696819851433>
- Oliveira, C., Fonseca, G., Sotero, L., Crespo, C., & Relvas, A. P. (2020). Family dynamics during emerging adulthood: Reviewing, integrating, and challenging the fiel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3), 350-367. <https://doi.org/10.1111/jftr.12386>

- Peng, S., Sutor, J. J., & Gilligan, M. (2018). The long arm of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Effects of recalled and current favoritism on adult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3*(6), 1123-1132.  
<https://doi.org/10.1177/0164027518785407>
- Perricone, G., Fontana, V., Burgio, S., & Polizzi, C. (2014). Sibling relationships as a resource for coping with traumatic events. *Springerplus, 3*(1), 1-6. <https://doi.org/10.1186/2193-1801-3-525>
- Pollet, T. V. (2007). Genetic relatedness and sibling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in a modern societ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3), 176-185.  
<https://doi.org/10.1016/j.evolhumbehav.2006.10.001>
- Pollet, T. V., & Hoben, A. D. (2011). A evolutionary perspective on siblings: Rivals and resources. In C. Salmon & T. K. Shackelford (Eds.), *The Oxford handbook of evolutionary family psychology* (pp. 128-148). Oxford University Press.
- Pollet, T. V., & Nettle, D. (2007). Birth order and face-to-face contact with a sibling: Firstborns have more contact than laterbor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7), 1796-1806.  
<https://doi.org/10.1016/j.paid.2007.05.021>
- Ponappa, S., Bartle-Haring, S., Holowacz, E., & Ferriby, M. (2017). The family system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college years: Triangulation,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ibling warmth as predicto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3*(1), 145-158. <https://doi.org/10.1111/jmft.12175>
- Ponti, L., & Smorti, M. (2019). The roles of parental attachment and sibling relationships on life satisfaction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6), 1747-1763.  
<https://doi.org/10.1177/0265407518771741>

- Poonam, & Punia, S. (2012). Impact of parental and contextual factors on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in the families. *Studies on Home and Community Science*, 6(2), 107-112.  
<https://doi.org/10.1080/09737189.2012.11885375>
- Raley, S., & Bianchi, S. (2006). Sons, daughters, and family processes: Does gender of children matter?. *Annual Review of sociology*, 401-421. <https://doi.org/10.1146/annurev.soc.32.061604.123106>
- Rauer, A. J., & Volling, B. L. (2007). Differential parenting and sibling jealousy: Developmental correlates of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4(4), 495-511.  
<https://doi.org/10.1002/9781444323542.ch17>
- Riggio, H. R. (2006). Structural features of sibling dyads and attitudes toward sibling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27(9), 1233-1254.  
<https://doi.org/10.1177/0192513X06289103>
- Roberts, R. E., & Bengtson, V. L. (1993).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63-277.  
<https://doi.org/10.2307/2786663>
- Ruff, S. C., Durtschi, J. A., & Day, R. D. (2018). Family subsystems predicti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over tim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4(3), 527-542. <https://doi.org/10.1111/jmft.12265>
- Salmon, C. (2003). Birth order and relationships. *Human nature*, 14(1), 73-88. <https://doi.org/10.2307/2786663>
- Salmon, C. A., & Hehman, J. A. (2021). Good friends, better enemies? The effects of sibling sex, co-residence, and relatedness on sibling conflict and cooperation. *Evolutionary Psychological Science*, 7(4), 327-337. <https://doi.org/10.1007/s40806-021-00292-y>

- Scharf, M., Shulman, S., & Avigad-Spitz, L. (2005). Sibling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and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1), 64-90. <https://doi.org/10.1177/0743558404271133>
- Shanahan, L., McHale, S. M., Crouter, A. C., & Osgood, D. W. (2008). Linkages between parents' differential treatment, youth depressive symptoms, and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480-494.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8.00495.x>
- Sherman, A. M., Lansford, J. E., & Volling, B. L. (2006). Sibling relationships and best friendships in young adulthood: Warmth, conflict, and well-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3*(2), 151-165.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6.00110.x>
- Spitze, G. D., & Trent, K. (2018). Changes in individual sibling relationships in response to life ev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9*(2), 503-526. <https://doi.org/10.1177/0192513X1665343>
- Spitze, G., & Trent, K. (2006). Gender differences in adult sibling relations in two-chil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977-99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6.00308.x>
- Steinbach, A., & Hank, K. (2018). Full-, half-, and step-sibling relations in young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39*(9), 2639-2658. <https://doi.org/10.1177/0192513X18757829>
- Stewart, R. B., Kozak, A. L., Tingley, L. M., Goddard, J. M., Blake, E. M., & Cassel, W. A. (2001). Adult sibling relationships: Validation of a typology. *Personal relationships, 8*(3), 299-324.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1.tb00042.x>
- Stocker, C. M., Gilligan, M., Klopach, E. T., Conger, K. J., Lanthier, R. P., Neppl, T. K., ... & Wickrama, K. A. S. (2020). Sibling relationships in older adulthood: Links with loneliness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2), 175.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1.tb00042.x>

- Stocker, C. M., Lanthier, R. P., & Furman, W. (1997).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2), 210. <https://doi.org/10.1037/0893-3200.11.2.210>
- Suitor, J. J., & Pillemer, K. (2006). Choosing daughters: Exploring why mothers favor adult daughters over sons. *Sociological Perspectives, 49*(2), 139-161. <https://doi.org/10.1525/sop.2006.49.2.139>
- Suitor, J. J., Gilligan, M., & Pillemer, K. (2011).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in later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6*(6), 769-781. <http://doi.org/10.1093/geronb/gbr108>
- Suitor, J. J., Gilligan, M., & Pillemer, K. (2013). Continuity and change in mothers' favoritism toward offspring in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5), 1229-1247. <https://doi.org/10.1111/jomf.12067>
- Suitor, J. J., Gilligan, M., Peng, S., Con, G., Rurka, M., & Pillemer, K. (2016). My pride and joy? Predicting favoritism and disfavoritism in mother-adult child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4), 908-925. <https://doi.org/10.1111/jomf.12288>
- Suitor, J. J., Gilligan, M., Rurka, M., & Hou, Y. (2020). Roles of egos' and siblings' perceptions of maternal favoritism in adult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A within-family network approach. *Network Science, 8*(2), 271-289. <https://doi.org/10.1017/nws.2019.31>
- Suls, J., & Wheeler, L. (2000). A selective history of classic and neo-social comparison theory. In Jerry Suls, Ladd Wheeler (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pp. 3-19). Springer, Boston, MA.

- Sung, M., & Lee, J. (2013). Adult sibling and sibling-in-law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f confucian family norm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4(5), 571-587.  
<https://doi.org/10.3138/jcfs.44.5.571>
- Tanskanen, A. O., & Rotkirch, A. (2019). Sibling similarity and relationship quality in Finland. *Acta Sociologica*, 62(4), 440-456.  
<https://doi.org/10.1177/0001699318777042>
- Tanskanen, A. O., Danielsbacka, M., Jokela, M., & Rotkirch, A. (2017). Sibling conflicts in full-and half-sibling households in the UK.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49(1), 31-47.  
<https://doi.org/10.1017/S0021932016000043>
- Tamrouti-Makkink, I. D., Dubas, J. S., Gerris, J. R., & van Aken, M. A. (2004). The relation between the absolute level of parenting and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with adolescent siblings'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8), 1397-1406.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4.00331.x>
- Taylor, S. E., Sherman, D. K., Kim, H. S., Jarcho, J., Takagi, K., and Dunagan, M. S. (2004).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354-362. <https://doi.org/10.1037/0022-3514.87.3.354>
- Tillman, K. H. (2008). Coresident sibling composition and the academic ability, expectations, and performance of youth. *Sociological Perspectives*, 51(4), 679-711.  
<https://doi.org/10.1525/sop.2008.51.4.679>
- Tucker, C. J., Holt, M., & Wiesen-Martin, D. (2013). Inter-parental conflict and sibling warmth during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female dep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Psychological Reports*, 112(1), 243-251.  
<http://doi.org/10.2466/21.10.PR0.112.1.243-251>

- Van Volkom, M., & Beaudoin, E. (2017). The effect of birth order and sex on perceptions of the sibling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50*(3), 347–354.  
<http://doi.org/10.15640/jpbs.v5n2a3>
- Van Volkom, M., Machiz, C., & Reich, A. E. (2011). Sibling relationships in the college years: Do gender, birth order, and age spacing matter?.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1), 35–50.
- Van Volkom, M. (2006). Sibling relationships in middle and older adulthood: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rriage & Family Review*, *40*(2-3), 151–170. [https://doi.org/10.1300/J002v40n02\\_08](https://doi.org/10.1300/J002v40n02_08)
- Voorpostel, M., & Blieszner, R. (2008).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between adult sibling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57–167.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7.00468.x>
- Voorpostel, M., & Van Der Lippe, T. (2007). Support between siblings and between friends: Two worlds apa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5), 1271–128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7.00446.x>
- Voorpostel, M., van der Lippe, T., & Flap, H. (2012). For better or worse: Negative life events and sibling relationships. *International Sociology*, *27*(3), 330–348.  
<https://doi.org/10.1177/0268580911423051>
- Wałęcka-Matyja, K. (2016). Psychological aspects of sibling relational conflict vs. mental wellbeing levels in women's perceptions. *Polis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4*(1), 99–112.  
<http://doi.org/10.1515/pjap-2015-0052>
- Weaver, S. E., Coleman, M., & Ganong, L. H. (2003). The sibling relationship in young adulthood: Sibling functions and relationship perceptions as influenced by sibling pair composi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245–263.

<https://doi.org/10.1177/0192513X02250098>

- Weigel, D. J., & Weigel, R. R. (2015). Gender roles and family functioning: Gender differences in farm families. In Cynthia Berryman-Fink, Deborah Ballard-Reisch, Lisa H. Newman (Eds.) *Communication and sex-role socialization* (pp. 83-97). Routledge.
- West, C., & Zimmerman, D. H.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2), 125-151. <http://dx.doi.org/10.1177/0891243287001002002>
- White, L. (2001). Sibling relationships over the life course: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555-568.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1.00555.x>
- Whiteman, S. D., McHale, S. M., & Soli, A. (2011). Theoretical perspectives on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3*(2), 124-139  
<https://doi.org/10.1111/j.1756-2589.2011.00087.x>
- Wilkins-Clark, R. E., Markham, M. S., & Ferraro, A. J. (2021). Meaning making and communication influences on perceptions of sibling closeness among emerging adults. *Marriage & Family Review*, 1-32. <https://doi.org/10.1080/01494929.2021.1979707>
- Winkeler, M., Filipp, S. H., & Boll, T. (2000). Positivity in the aged' s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 “stake” or “leniency”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73-182.  
<https://doi.org/10.1080/016502500383296>
- Wong, T. M., Branje, S. J., VanderValk, I. E., Hawk, S. T., & Meeus, W. H. (2010). The role of siblings i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3*(5), 673-682.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9.11.003>
- Wu, K., Kim, J. H., Nagata, D. K., & Kim, S. I. (2018). Perception of

- sibling relationships and birth order among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emergi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39(13), 3641-3663. <https://doi.org/10.1177/0192513X18783465>
- Yu, J. J., & Gamble, W. C. (2008). Pathways of influence: Marital relationships and their association with parenting styles and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757-778. <https://doi.org/10.1007/s10826-008-9188-z>
- Zhao, Y., Chen, F., Yuan, C., Luo, R., Ma, X., & Zhang, C. (2021). Parental favoritism and mobile phone addiction in Chinese adolescents: The role of sibling relationship and gender differ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0, Article 105766.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20.105766>
- Zemp, M., Friedrich, A. S., Schirl, J., Dantchev, S., Voracek, M., & Tran, U. S. (2021).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interparental and sibling relationships: Positive or negative?. *PloS one*, 16(9), Article e025787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7874>

<부록 1> 질문지

질문지1)

- 응답자 선정 질문 -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1) 남자      2)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        )년 = 만 \_\_\_\_\_세

SQ2-1. 귀하는 올해(2022년) 생일이 지났습니까? (응답일 기준)  
[1개 선택]

- 1) 예            2) 아니오

SQ3. 귀하의 **형제자매**(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는 **귀하 본인을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 낳아 주신 부모님 중 한 분만 같은 경우, 낳아 주신 부모님  
다르지만 재혼, 입양 등으로 형제자매가 된 경우 등도 포함

※ 살아 있는 형제자매의 수를 기입 [직접 입력]

총 (        )명 (본인 제외)

1) 부록에 제시한 질문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만 수록한 것임.

I. 응답자 배경

Q1-1. 귀하는 현재 **1인가구**입니까? (주5일 이상 기준) [1개 선택]

- 1) 예    2) 아니오

Q1-2. 현재 귀하와 주 5일 이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귀하를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가족 이외의 사람도 포함 [직접 입력]

(        )명

Q1-3. 귀하와 주 5일 이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실제 거주 기준) [1개 선택]

- 1) 나의 어머니  
2) 나의 아버지  
3) 나의 배우자(또는 연인)  
4) 나의 자녀  
5) 나의 할머니  
6) 나의 할아버지  
7) 나의 형제자매  
8) 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9) 나의 형제자매의 자녀  
10) 나의 친구  
11) 기타( )

Q1-4. 귀하의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혼인신고 또는 결혼식 기준) [1개 선택]

- 1) 미혼/비혼  
2) 기혼  
3) 이혼, 별거, 사별

Q1-5. 귀하는 지난 1개월 동안(최근 30일)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개 선택]

- 1) 일했음  
2) 학교에 다녔음(학생)  
3) 진학준비(N수생, 편입준비, 대학원 진학 준비 등)  
4) 구직활동, 취업준비(고시, 직업훈련 포함)  
5) 가사, 육아, 가족돌봄

- 6) 군복무, 군입대 대기
- 7) 쉬었음(휴식, 질병 등)
- 8) 기타

Q1-6.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있습니까?

[1개 선택]

- 0) 학교를 안 다녔음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대학교(2-3년제)
- 5) 대학교(4년제 이상)
- 6) 대학원(석사과정)
- 7) 대학원(박사과정)

Q1-7. 이 학교급에서 귀하의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 1) 졸업    2) 재학    3) 수료    4) 휴학    5) 중퇴

Q1-8.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는 '일하였다'에 해당. [1개 선택]

- 1) 일하였다
- 2)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가 있었다(휴가, 휴직 등)
- 3) 일자리가 없었다

Q1-9. 귀하의 어머니는 현재 살아 계십니까? [1개 선택]

- 1) 예    2) 아니오/모름

Q1-10. 귀하의 아버지는 현재 살아 계십니까? [1개 선택]

- 1) 예    2) 아니오/모름

Q1-11 귀하는 모든 형제자매 중 몇 번째로 태어났습니까? (현재 살아있는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응답)

※ 출생도가 같은 경우,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이 형제자매를 짜증나게 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	1	2	3	4	5

Q2-7-1. 내 생각에, 어머니는 (나보다) 이 형제자매를 더 좋아하신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 2)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좋아하신다
- 4)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
- 5)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Q2-7-2. 이 형제자매는 어머니가(나보다) 본인을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것이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 2)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것
- 4) 그렇다. 본인을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5) 그렇다. 본인을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Q2-7-3. 이어서 귀하와 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를 주어로 하는 문항과, 이 형제자매를 주어로 하는 문항이 번갈아 제시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형제자매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격려해준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격려해준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1	2	3	4	5

Q2-7-4. 내 생각에, 아버지는 (나보다) 이 형제자매를 더 좋아하신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 2)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좋아하신다
- 4)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

5)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Q2-7-5. 이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나보다) 본인을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것이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 2)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것
- 4) 그렇다. 본인을 더 좋아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5) 그렇다. 본인을 더 좋아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Q2-7-6. 이어서 귀하와 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를 주어로 하는 문항과, 이 형제자매를 주어로 하는 문항이 번갈아 제시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형제자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나는 나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 형제자매와 상의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나와 상의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를 비난한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를 비난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를 화나게 한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를 화나게 한다	1	2	3	4	5

Q2-7-7. 이 형제자매는 어머니가 (나보다) 본인을 더 지지하신다고 생각할 것이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 2)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지지하신다고 생각할 것
- 4) 그렇다. 본인을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5) 그렇다. 본인을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Q2-7-8. 내 생각에, 어머니는 (나보다) 이 형제자매를 더 지지하신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 2)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지지하신다
- 4)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
- 5)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Q2-7-9. 이어서 귀하와 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를 주어로 하는 문항과, 이 형제자매를 주어로 하는 문항이 번갈아 제시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형제자매에게 기댈 수 있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에게 기댈 수 있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	1	2	3	4	5

Q2-7-10. 이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나보다) 본인을 더 지지하신다고 생각할 것이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 2)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지지하신다고 생각할 것
- 4) 그렇다. 본인을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5) 그렇다. 본인을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Q2-7-11. 내 생각에, 아버지는 (나보다) 이 형제자매를 더 지지하신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 2) 아니다. 나를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지지하신다
- 4)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지지하실 때가 있다
- 5) 그렇다. 이 형제자매를 더 지지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Q2-7-12. 이어서 귀하와 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를 주어로 하는 문항과, 이 형제자매를 주어로 하는 문항이 번갈아 제시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 형제자매의 대인관계 (친구, 연인, 동료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의 대인관계 (친구, 연인, 동료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내 의견에 반대 한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의 의견에 반대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를 무시한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를 무시한다	1	2	3	4	5

Q2-7-13. 이 형제자매는 어머니가 (나보다) 본인과 심적으로 더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 2)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가깝다고 생각할 것
- 4) 그렇다. 본인과 더 가까울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5) 그렇다. 본인과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Q2-7-14. 내 생각에, 어머니는 (나보다) 이 형제자매와 심적으로 더 가깝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다
- 2)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있다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가깝다
- 4) 그렇다. 이 형제자매와 더 가까울 때가 있다
- 5) 그렇다. 이 형제자매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다

Q2-7-15. 이어서 귀하와 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를 주어로 하는 문항과, 이 형제자매를 주어로 하는 문항이 번갈아 제시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별로 그렇지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않다	않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형제자매와 의논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와 의논한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나를 부하처럼 부린다	1	2	3	4	5
나는 이 형제자매를 부하처럼 부린다	1	2	3	4	5

Q2-7-16. 이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나보다 본인과 심적으로 더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 2)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가깝다고 생각할 것
- 4) 그렇다. 본인과 더 가까울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
- 5) 그렇다. 본인과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Q2-7-17. 내 생각에, 아버지는 나보다 이 형제자매와 심적으로 더 가깝다. [1개 선택]

- 1)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다
- 2) 아니다. 나와 더 가까울 때가 있다
- 3) 아니다. 둘 다 똑같이 가깝다
- 4) 그렇다. 이 형제자매와 더 가까울 때가 있다
- 5) 그렇다. 이 형제자매와 더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다

Q2-7-18. 이어서 귀하와 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를 주어로 하는 문항과, 이 형제자매를 주어로 하는 문항이 번갈아 제시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 형제자매의 생각을 알고 있다	1	2	3	4	5
이 형제자매는 내 생각을 알고 있다	1	2	3	4	5

Q2-8.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이 형제자매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얼마나 주고받았습니까?

[항목별 1개 선택]

문 항	거의	1주	1주	1개	1개		1년	거의
-----	----	----	----	----	----	--	----	----

	매일	일에 3-4 회	일에 1-2 회	월에 2-3 회	월에 1회	2-3 개월 에 1 회	에 단 면	하 지 않 음
<b>내가 이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지원</b>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록금, 주거비 등)	1	2	3	4	5	6	7	8
집안일(청소, 빨래, 식사준비, 심부름, 병간호 등)	1	2	3	4	5	6	7	8
정서적 지원(개인/집안 문제 상담, 이야기 들어주기 등)	1	2	3	4	5	6	7	8
<b>내가 이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지원</b>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록금, 주거비 등)	1	2	3	4	5	6	7	8
집안일(청소, 빨래, 식사준비, 심부름, 병간호 등)	1	2	3	4	5	6	7	8
정서적 지원(개인/집안 문제 상담, 이야기 들어주기 등)	1	2	3	4	5	6	7	8

Q2-9. 귀하는 이 형제자매와 전화, 문자, 카카오톡(단톡방 포함),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얼마나 자주 상호작용하십니까? [1개 선택]

- 1) 거의 매일
- 2) 1주일에 3-4회
- 3) 1주일에 1-2회
- 4) 1개월에 2-3회
- 5) 1개월에 1-2회
- 6) 2-3개월에 1회
- 7) 1년에 몇 번
- 8)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음

### III. 부모의 배경

◆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에 대한 문항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이 다르다면,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준 응답하시면 됩니다.

Q3-1.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재 부부입니까?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사별, 이혼, 별거, 결혼한 적 없음 등)

Q3-2. 귀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 1) 고등학교 중퇴 이하(중학교, 초등학교, 무학 포함)
- 2) 고등학교 졸업
- 3) 대학교 중퇴
- 4) 대학교(2-3년제) 졸업
- 5) 대학교(4년제) 졸업
- 6) 대학원 졸업

Q3-3. 귀하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 1) 고등학교 중퇴 이하(중학교, 초등학교, 무학 포함)
- 2) 고등학교 졸업
- 3) 대학교 중퇴
- 4) 대학교(2-3년제) 졸업
- 5) 대학교(4년제) 졸업
- 6) 대학원 졸업

Q3-4. 귀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아주 조금						매우 많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b>어머니</b> 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b>아버지</b> 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b>어머니</b> 와 얼마나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b>아버지</b> 와 얼마나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b>어머니</b> 가 귀하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b>아버지</b> 가 귀하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b>어머니</b> 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b>아버지</b> 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input type="checkbox"/>											

Abstract

# Multilevel Analysis of Sibling Warmth and Conflict Among Korean Men and Women in Young Adulthood

Baek, Yeseul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ontemporary Korea, siblings maintain ties with their siblings for longer periods of time due to changes in the life course of young adults. Although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little is known about sibling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sibl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ibling warmth and conflict among Korean young adults. The predictors included factors related to sibling relationship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Data came from 396 Korean young adults aged 19-34 years with at least one sibling and two living parents. A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193 men for a total of 305 siblings, and 203 women for a total of 286 siblings. The data were analyzed separately by gender. In the model, the study

controlled for participa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years of education, employment, marital status,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sibling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years of education, employment, marital statu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levels of sibling warmth and conflict were similar for both young men and young women. Overall, the perceived level of parental favoritism was low, but the young women in this study perceived a higher level of parental favoritism than men. The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included several factors regarding each sibling such as an older sibling, age-spacing, gender(s) of the sibling(s), co-residence with a sibling(s), frequency of providing instrumental or economic support for siblings, and frequency of receiving instrumental or economic support from siblings in addition to the total number of sibl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llowing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warmth and conflict for young men's siblings: number of siblings, an older sibling, and frequency of receiving instrumental or economic support from siblings. In other words, men who were older than their sibling, and those who frequently received support from their sibling(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warmth. In addition, men who had more sibling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nflict. For women, the number of siblings, sibling's gender, and frequency of providing instrumental or economic support for siblings were associated with warmth and conflict for siblings. In other words, women who had frequently given support to sibling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warmth, and those who had female sibling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both warmth and conflict. In addition, those who had more sibling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nflict.

Amo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factors (i.e., maternal and

paternal affection and favoritism), maternal affection and favoritism were associated with warmth and conflict for young men's siblings. In other words, men who had a more affectionate mother-child relationship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warmth and lower levels of conflict with their sibling. In contrast, men who perceived that their mother favored any child were more likely to report lower levels of warmth,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icipant or another child was favored. For women, the mother's affection and the father's favoritism were associated with warmth and conflict. In other words, women who had a more affectionate mother-child relationship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warmth. In contrast, women who perceived that their father favored any child were more likely to report lower levels of warmth and higher levels of conflict,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icipant or another child was favored.

This study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Korean young adults' sibling relationships by focusing on multiple aspects of sibl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sibling warmth and conflict.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reveal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and interdependence between sibling relationship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Keywords : Young adults, emerging adults, sibling warmth, sibling conflict, sibling relationships, parents-child relationships, parental favoritism, multilevel analysis

*Student Number* : 2021-24499